

# 장학월보

2010  
제213호(통권432호) **11**

- 장학특집 / 독서교육
- 교육정보 / 교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 전문가 초대석 / 학교조경 및 학교 숲 관리 이렇게

“여러분의 작지만 공감되는 참신한 제안을 들려주세요.  
저희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분야 생활공감정책 제안 공모 -



■ 생활공감정책이란 무엇인가요?

-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의 입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작지만 꼭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불편사항, 제도개선사항, 지원필요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생활공감정책 제안은 어떻게 하나요?

-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 경남도민 누구나
- 2010. 11. 1.(월) ~ 11. 22.(월)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http://www.gne.go.kr)) 열린마당 / 정책제안방 / 생활공감정책 제안방에 접속하셔서, 제안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 우수제안자에게는 이렇게 포상합니다.

- 우수제안자 중 공무원은 표창장, 도민은 감사장, 학생은 우등상을 수여합니다.

구분 \ 등급	최우수	우수	장려
인원	1명	2명	5명
부상금	50만원	30만원	20만원

#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0. 11 제213호(통권 432호)



02 권두언  
04 교육감 동정  
05 장학현장  
06 장학 칼럼  
08 특집 /  
독서교육

- 책 읽는 경남, 함께하는 독서 운동 / 고영진
- 꿈을 키우는 학교 / 이종규
- 재미있게 읽고 열띠게 토론하기 / 홍성배
- 독서가 희망입니다 / 정태식
- 우리 함께 책을 켜져 꿈을 그리자! / 김영찬
- 『도서관 활용 수업』운영으로 수업 쉼쉴! 생각 토크! / 하옥진
- 함께해서 행복한 학교 도서관 황매꽃터 / 허남수
- 책을 읽자, 생각을 나누자, 글을 쓰자. / 하정훈

26 전문가 초대석  
29 수업기술 나누기

- 학교조경 및 학교 숲 관리 이렇게 / 안현철
- 생활의 매 순간이 교육자료가 되어야 / 원순련
- 자연에서 배우는 유아과학교육 / 이희숙
- 아이들이 가르쳐준 수업의 기술 / 이미숙

34 교육정보

- 교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 정운영
- 리야드한국학교 소개 / 이문수

40 이색 교육현장

- 살아있는 경제교육 이렇게 해 보자 / 장치환
- 동물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어린이 '또 다른 생명들' 사육장으로 오세요 / 정연보
- 과학을 통한 나눔과 배려가 있는 장유교 이야기 / 강은경
- I am Happy! 행복프로젝트에 도전하다 / 백미선
- 행복드림 문화재지킴이 활동으로 전국 청소년지킴이 우수단체에 선정되기까지 / 정창교

54 참여마당

- 교 원 -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법도 안다 / 박현성
  - 얼굴 / 김철민
  - 안개 / 최은재
- 학부모 - 교실에서 바라본 풍경 / 오영지
- 학 생 - 어머니를 닮은 바다 / 이예진
-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를 읽고 / 조명숙
- 학습자존감 강화 프로그램
- 파란 하늘, 흰 구름 / 박규동

62 향기나는 서가  
64 장학자료 발간 안내  
65지상갤러리

▶ 표지사진 - 이복순(함안 중앙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12월호 모집 기간 : 2010년 11월 15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외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안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0년 11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강대룡 • 편집주간 : 교육과정기획과 장학사 김정희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재철, 구현숙,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 “책 읽는 경남, 함께하는 독서운동”

교육가족 여러분!

높고 푸른 가을하늘 아래 곱게 물들어 가는 단풍처럼 학교현장에도 더 풍성한 교육적 결실과 함께 학생들의 성숙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예로부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하여 누구나 책을 가까이 하고 사색을 즐겼습니다.

한 자도 채 되지 않는 서안(낮은 책상)앞에 앉아 구만리를 날아가는 대붕을 생각했던 우리 선조들의 기개와 그 상상력은 어디서 왔을지 새삼 의문이 듭니다.

날로 발달 해 가는 정보화 시대에 와이드 TV와 3D컴퓨터로 무장하고 시각의 프레임에 갇혀 상상의 틀과 생각의 여백을 잃어버린 지금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진부하게 느꼈던 <독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겠습니다.

얼마 전 한 방송 토론회에서 <책과 TV는 서로 보완적인가, 혹은 상충적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패널들은 양쪽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의견을 개진했는데, 영상 세대를 옹호하는 패널은 TV가 주는 순기능을 강조하며, 갈수록 복잡해지는 드라마 줄거리는 책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큼의 두뇌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TV시청은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면이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온갖 인물들과 그 정신을 만나고 교감하는 쌍방향의 소통이고 생산적인 두뇌활동입니다.

살아오면서 저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책에서 만났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도 일기를 쓰며 늘 스스로를 바로 잡고자 애썼던 아우렐리우스를, 그리고 3.8선을 베개 삼아 누워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던 백범 김 구 선생도 만났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훌륭한 한 인격을 만나고 그 인격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 시기에는 더더욱 많은 책들을 통해 경험의 폭을 넓혀 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내년부터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독서 조례를 제정하고 캠페인을 전개 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운동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학력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을 비롯하여 인성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도민에게는 평생학습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책 읽는 부모를 보고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적 환경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릇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그 국민의 독서량과 비례한다는 통계도 있으며 문화 인프라가 탄탄한 나라는 경제가 다소 어려워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부터 비롯된 인류의 책읽기는 세월이 가도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오래 되고 가장 친근한 벗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가도 남는 것은 결국 경제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한 시대를 꽃피우는 것은 인물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잘 먹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읽고 또 무엇을 썼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청소년들의 언행이 거칠어져 간다고 많은 걱정들을 하십니다.  
독서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고 마음을 치유하고, 지혜와 용기를 배우며 우리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 간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보다도 값진 유산을 물려주는 셈 입니다  
이 가을에, 책 서너 권을 쌓아놓고 앉아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흐뭇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현장에서 책 읽기가 생활화되어 경남의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지성을 갖춘 인재로 자라나기를 거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 11.

경상남도교육감





01-



02-



04-



03-



05-



06-

- 01 경남지역 향교 전교초청 간담회
- 02 경남모범운전자회 청소년선도사업 격려금 전달식
- 03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학교장터 업무제휴 협약식
- 04 미국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부교육감 방문
- 05 월드비전 『사랑의 동전 나누기』 성금 접수
- 06 제91회 전국체전 성화 출발식



07



08



10



09



11

- 07 경상남도교육연수원 - 베트남 교원 초청 정보화 연수
- 08 경남유아교육원 - 학부모 연수
- 09 사천교육지원청 - 과학교육센터 초청 강연회
- 10 김해도서관 - 시낭송음악회
- 11 낙동강학생수련원 - 사물놀이
- 12 의령교육지원청 - 유곡천 생태환경 탐사활동



12

# 꿈을 키우는 학교



이 종 규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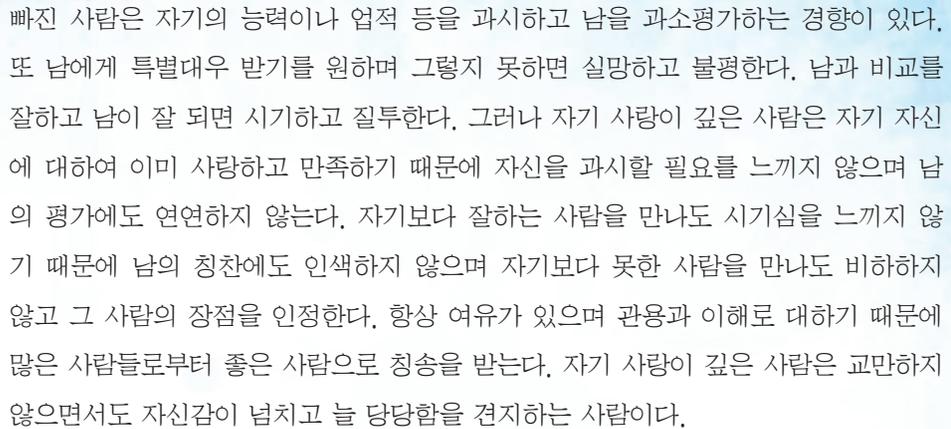
오늘 중앙 일간지에서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갖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포자기하는 ‘침체병’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병이 우리나라로 옮겨 오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무척 놀랐다.

지금 일본에서는 ‘의욕상실’이라는 사회심리 현상이 팽배하여 경쟁에서 뒤쳐지는 젊은이들이 아예 신분상승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류층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침체병’이 우리 사회에도 옮겨붙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갈수록 신분상승이 힘든 ‘사다리의 붕괴’가 뚜렷해지면서 해보자는 생각마저 포기하는 ‘의욕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꿈나 무들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다.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의욕이 부족하며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은 꿈을 갖지 못하고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 사랑이 부족한 이유인지도 모른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이러한 자기사랑은 자만심이나 자기도취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자만심이 너무 강한 사람이나 자기도취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나 업적 등을 과시하고 남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 남에게 특별대우 받기를 원하며 그렇지 못하면 실망하고 불평한다. 남과 비교를 잘하고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러나 자기 사랑이 깊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미 사랑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자신을 과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남의 평가에도 연연하지 않는다.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나도 시기심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남의 칭찬에도 인색하지 않으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도 비하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한다. 항상 여유가 있으며 관용과 이해로 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칭송을 받는다. 자기 사랑이 깊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감이 넘치고 늘 당당함을 견지하는 사람이다.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점점 더 자기의 능력과 힘이 길러져 성공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자학하고 불평불만 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지고 노력하지 않게 되며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자기 스스로를 능력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학생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남교육의 비전인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은 너무나 시 적절하고 공감이가는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경남의 모든 학교는 우리 꿈나무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알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꿈을 키우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저마다의 소질과 특성을 파악하여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함양과 투철한 교육애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교육중심의 행정, 학생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경상남도의 모든 학교는 ‘꿈을 키우는 학교’가 되어 학생들이 일본의 ‘침체병’에 전염되지 않고, 긍정적 자아개념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랑스런 꿈나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재미있게 읽고 열띠게 토론하기



홍성배  
거제 연초초등학교 교장

### ▣ 독서교육! 틀을 좀 깨보자

얼마 전 본교에서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사용법 연수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의 독서 이력을 관리하고 독서교육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대학입시사정관자료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시스템이었다. 모든 학생이 필독도서와 권장도서를 읽고, 그 산출물을 만들어 시스템에 올려야 하는 일련의 과정이 흑시,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책 읽을 시간을 빼앗고, 책 읽기 싫어하거나 제대로 책을 읽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하기 싫은 일만 늘리게 될까봐 걱정이 앞선다. 지금까지의 책 읽기지도는 없고 독서결과물 위주의 독서교육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다.

독서야말로 고도의 문화적인 활동이므로 자발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재미있게 읽어야 한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책 읽기 지도와 독후 활동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독서의 생활화를 이끌어보자.

### ▣ 맞춤형 독서지도로 재미있게 읽게 하자

모든 학생에게 똑 같은 책, 똑같은 수준으로 읽기를 기대하기보다 능력에 맞고 재미있는 책읽기 지도가 앞서야 한다.

### 같은 책, 함께 읽는 선생님

‘0818 독서운동’은 가장 손쉽게 실시하고 있는 사제동행 책읽기와 가정과 연계한 독

서교육이다. 본교에서는 사제동행책읽기의 색다른 운영과 독서교육 6단계의 실천으로 학생들의 독서 흥미 유발과 습관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아침시간에는 선생님들도 업무처리를 잠시 미루고 학생들이 읽는 필독도서나 권장도서를 함께 읽는다. 그리고 선생님은 함께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독서능력을 파악하고, 능력에 맞는 읽을거리 선정에 도와주어, 사전에 학교도서관이나 학급문고에서 대출받은 책으로 전학생이 참여하는 독서활동을 지도한다. 이 활동의 결과는 독서기록장에 기록하고 학급 북 토크(Book-Talk) 시간의 자료로 활용하여 자신있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과 같은 책을 읽는 선생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많이 생겨 점차 책읽기에 몰두하는 아이들이 늘어간다.

### 학부모 도우미를 활용한 '읽어주는 책' 시간

우리 학교 도서관 '글도래 샘'에는 학년별 필독도서, 권장도서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고, 매일 학부모 도우미가 상주하여 학생들의 독서활동과 책 대여 및 관리를 돕고 있다.

특히, 학부모 도우미와 함께하는 '읽어주는 책' 시간을 매일 30분씩, 수준별 2개 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독서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 중 담임선생님의 추천과 희망으로 매일 10~15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읽어주는 책 시간 운영〉

'읽어주는 책'은 학년 수준 및 학년 간의 연계에 고려하여 한국독서교육 연구회에서 권장하는 '생각하는 그림책'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한다. 학부모 도우미에서 학생 중심으로 이어가기, 학부모 도우미 또는 학생이 읽어주는 시간, 학부모 도우미가 직접 읽어 주고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어 답해보는 등으로 구성하여 책 읽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독서 흥미 유발 및 학급 북토크 시간의 이야깃거리들을 제공할 수 있어서 점심시간과 방과후 시간이 늘 복적이다.

### ▣ 짧은 글 긴 생각으로 열띠게 토론하기

독서교육은 학습능력 형성에 있는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 이해하고 기억하는 힘을 기르게 하며, 모든 학습의 기초를 제공하여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시켜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학급마다 특색있는 북 토크(Book-Talk)

북 토크는 학급마다 특색있게 운영하는 시간으로써 창의적 재량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학생의 흥미, 독서 능력에 맞는 도서를 월별 1권 선정하여 아침독서시간과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 읽게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질문과 답변하기 중심으로 전개하고, 다양한 질문에서 선정된 하나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질문은 해당 시간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 만들기 코너를 이용하여 월 중 내내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침독서활동과 책 읽어주는 시간을 연계한 수준별 독서활동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지도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기에 학생과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 학생이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 교육과정 속에 녹아있는 독서논술교육

독서교육은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창의·인성교육의 최고 방안으로 손꼽힌다. 본교에서는 교과는 물론 전 학년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독서능력 개발과 논술'이라는 교재를 활용한 독서 논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집중력 훈련, 독서논술훈련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독서논술훈련은 지문읽기→생각 담기→생각 키우기→생각 완성하기의 단계를 거쳐 지도하므로 수준별 지도가 가능하고, 토론의



〈자기 생각말하기 운영〉

기법 향상과 학습 기초 능력 개발에 도움을 준다. 또한, 주 1회 학교방송 '자기 생각 말하기'를 통해 독후활동 결과를 발표하여, 학력향상과 자신감 있는 태도를 신장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과 올바른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창의·인성교육에도 도움을 준다.

### ▣ 생활 속 책 읽는 문화 만들기

그 외 본교에서는 독서 O818운동, OFF TV ON Book, 독서인증제, 다독상, 독후학예행사 등을 가정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책읽기가 부족하고, 맞벌이 부모들이 대부분이어서 실천에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다. 하지만 재미있게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고부터 학교홈페이지에 매일 평균 10편 이상의 독후활동 자료가 올라온다. 이는 먼저 수준에 맞는 책을 제대로 읽게 하여 독서흥미를 유발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학교에서는 독서 환경조성 및 프로그램운영에 노력하여야겠지만 수업하기에도 바쁜 교사들에게 독서교육까지 완벽하게 운영하라고 하기가 감히 미안하다. 그래서 또 다른 바람이 있다면 때론 더욱 전문적이고 흥미로운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평소 공공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 속의 독서교육에 눈을 돌려 보자.

# 독서가 희망입니다



정 태 식  
거창 위천초등학교 교장

개인의 경쟁력 그리고 자아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합리적 문제해결력을 지닐 수 있도록 계획적인 교육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에서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독서교육이다. 독서야말로 풍부한 배경지식을 쌓고 이러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독서는 학력 신장의 지름길이며 아름다운 심성을 길러 마음을 살찌우게 하는 요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본교에서는 올해에 학교경영 역점과제 중 하나로 '책 읽는 시간이 행복한 독서교육'으로 정하고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하나, 행복한 아침독서 기적을 만든다

독서교육에서 독서 환경 조성과 독서행사도 필요하지만 일과 시간 중에 책 읽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매일 아침 8시 40분부터 9시까지 20분을 사제동생 아침 독서시간으로 정하여 학급에서 아침독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읽고 싶은 책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은 물론이고 학급마다 200여 권의 책을 구비한 학급 문고를 활용하고 있다.

행복한 아침 독서를 위해서는 '모두가 읽어요, 날마다 읽어요, 좋아하는 책을 읽어요, 그냥 읽기만 해요'라는 4대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꾸준한 실천에서 나오는 20분의 효과는 기적을 만든다. 학생들의 책 읽는 모습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독서를 하게 되어 자연스레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

또 내가 읽은 도서 목록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아침 독서기록장을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도서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의 신장이라는 효과도 얻고 있다.

이러한 아침독서 20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책을 읽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기도 하고 책을 읽는 교사 또한 독서를 통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둘, 책과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

새로 구입한 도서에 대한 전시회를 도서관에서 열었다. 이 행사는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올해로 3회를 맞이했다.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함께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에 대한 흥미를 갖고 신간 도서를 모두 살펴보는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도서 구입은 아동들의 독서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매년 권장도서목록과 학생들의 희망을 참고로 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새로 들어온 책 237권이 전시되어 학생들의 독서 욕구를 자극했다. 학생들은 신간도서 중에서 읽고싶은 책을 골라보고 독서 계획을 세워 보기도 했다.

### 셋, 골든 벨을 울려라!

전교생 78명을 대상으로 독서 골든벨 퀴즈 대회를 실시하였다. 독서 퀴즈 문제는 새로 들어온 책 10권의 내용 중에서 출제하였으며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고학년부와 저학년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예선에는 모든 학생이 참가하여 O·X 퀴즈를 풀었는데, 이 중에서 연속하여 정답을 맞힌 학생 20명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본선에 진출한 학생들은 주관식 문제를 듣고 정답 판에 답을 적은 다음 동시에 들어올려 답을 확인하였다. 정답을 맞힌 학생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 마지막에 남은 3명 중에서 순위를 가렸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독서 욕구를 자극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독후감이나 독서 감상화 뿐만 아니라 독서퀴즈라는 새로운 독서후 활동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독서가 주는 즐거움을 다시 느껴보게 하였다.

### 넷, 학교 도서관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농촌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독서학습의 기회로 ‘독서 낭독회’를 창원도서관의 지원으로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삽화 화면을 보며 경남 독서 한마당의 우수도서로 선정된 ‘마지막 거인’을 동화 구연가 황인욱 강사님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았다. 그 후 독서퀴즈를 통해 책의

주요 내용을 되새기며 ‘이기심을 버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에 대해 생각 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10월 27일에는 창녕도서관의 지원으로 ‘독서신문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다섯, 이제 학부모도 공부합시다!**

지역사회 실정을 감안하여 야간에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녀의 올바른 독서 지도에 대하여 특강을 실시하였다. 강사로는 한국 독서 능력 개발원의 이숙란 연구위원이 초빙되었다.

강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독서 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효과와 책을 깊이 음미하며 읽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다양한 예시와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된 강의를 통해 학부모들은 독서 교육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마련한 이번 특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독서 지도와 관련된 여러 강의를 접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부모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깨달음은 물론 자녀 독서 교육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

또 학부모 참여교육으로 진주교대 이경원 교수를 초빙하여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덕성교육’ 특강을 실시하였고, 학부모 덕성 1일 체험으로 학부모 20여 명이 하동을 방문하여 녹차 따기 및 다도 체험을 하였다.

### **여섯, 달빛 도서관 운영 및 도서 위탁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교육으로 매주 화, 수, 목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도서관에 와서 독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위천면사무소와 위천지역 아동센터에도 학교도서를 대여하여 지역민이 독서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만들었다. 이로써 교육공동체가 함께 독서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독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독서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와 문화가 살아 움직이는 지역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학생의 꿈을 키우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명품 위천교육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 우리 함께 책을 켜자! 꿈을 그리자!



김영찬  
창원 안골포초등학교 교장

## 1. 들어가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하고 즐겨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는 책 속에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인간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목적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력향상의 기본이 되는 자기학습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독서습관을 기르고 독서논술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 2.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독서활동

### 가. 아침 독서활동

매일 아침 등교 이후 독서를 하는 것을 습관화하기 위해 아침 자습 시간에 담임교사와 함께 모두 독서를 하고 있다. 학생들은 아침 책읽기를 통해 책을 친구처럼 친근하게 여기게 되고 차츰차츰 책을 읽는 재미에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교실은 차분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자연스럽게 1교시 수업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 나. 독서인증제 실시

학년별 필독도서와 권장도서를 선정하여 일정한 분량의 책을 읽고 독후활동으로 독서 기록장을 기록한 학생에게 '독서인증상'을 부여하였다. 독서인증 단계는 개나리상, 목련

상, 무궁화상이며 마지막 단계의 무궁화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독서 뺏지를 주어 독서의 욕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본교의 독서인증 단계에서는 학년에 맞는 영어 도서를 읽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생활 속의 영어 동화읽기도 병행하고 있다.

#### 다. 독서기록장 쓰기

매일 아침 독서 시간에 읽는 책과 평소 생활 가운데 읽은 책은 독서기록장에 기록하여 자신만의 소중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고 간직하려고 노력한다.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책을 읽은 소감을 다양하게 적어 봄으로써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독서기록장 우수 기록자에게는 학년 말에 시상을 하여 격려하였다.

#### 라. 가족독서신문 만들기 대회

여름 방학 과제로 제시한 가족독서신문 만들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가정과 연계한 독서활동을 하고자 하였다. 온 가족이 책을 읽고 토론을 하거나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한 것을 독서신문으로 만들어 봄으로써 가족이 함께하는 독서활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3. 반딧불 도서관에서의 다양한 활동

#### 가. 교실에서 책 읽어주기



본교에서는 학교 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울러 학교와 가정이 연계되는 독서교육을 지향하기 위하여 학부모로 구성된 명예 사서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 사서 도우미는 본교 반딧불 도서관의 각종 행사를 진행하며, 빛그림 상영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교실에서 책 읽어주기’ 활동은 학부모 사서 도우미들이 매주 금요일 아침 8시 40분부터 8시 55분까지 1~3학년 총 29개 반에 그림책을 한권씩 읽어주는 활동이다.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4년째 실시되고 있는 이 활동은 학부모님께도 보람 있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호응이 좋다.

처음 듣기 독서를 접한 학생들은 많이 어색하고 잘 듣지 못하는 경향도 있었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듣기 독서의 매력에 푹 빠져 금요일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했던 그림이나 내용으로 구성된 책들도 그 시간을 이용하여 접하게 되어 다시 그 책들을 도서관에서 대출하여 스스로 다시 한번 읽는 학생들이 늘어남으로 도서관을 찾는 아동수도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관심도가 떨어지는 그림책들을 더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 나. 독서통장 제도

도서관 활용과 책 읽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학교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독서통장 프린터기, 독서통장을 구입하여 학생 1인에게 모두 통장을 발급받게 하여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각자의 이름이 찍힌 독서통장을 모두 발급 받았으며 도서관 책을 반납 후 독서통장을 프린터기에 넣으면 자신이 읽은 책의 목록과 포인트가 찍혀 나온다.



학교에서는 독서통장 포인트에 대한 보상으로 각 학기말에 우수 포인트 자들에게 도서 상품권을 지급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독서통장을 활용한 뒤, 도서 대출량이 늘었으며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손에 독서통장을 들고 통장 정리를 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로 도서관이 붐비고 있다.

### 다. 빛그림 상영

도서관 학부모 명예사서들이 한 달에 한번 토요일마다 본교 강당에서 각 학년 아동들에게 빛그림을 상영한다. 빛그림은 아동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도서를 인형극으로 만든 것으로, 평소 다양한 문화공연을 접하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문화의 장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달구와 손톱」, 「단 똥 장수」, 「길거리 가수 새미」, 「피튜니아 공부를 시작하다」 등 여러 편의 우수한 작품들이 빛그림으로 상영되어 본교의 아동들과 선생님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제공하였다.



## 4. 맺으며

어린 시절 좋은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꿈을 이루어 가는 예를 우리는 들어왔다. 매일 교사와 함께하는 아침 독서시간과 반딧불 도서관의 양서를 선택해 읽는 활동을 통해서 늘 책을 가까이하는 독서습관이 형성되고 스스로 찾아 공부할 수 있는 학습력이 길러져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살찌워 줄 것을 다시 한번 믿어 본다.

# 『도서관 활용 수업』운영으로 수업 쏙쏙! 생각 톡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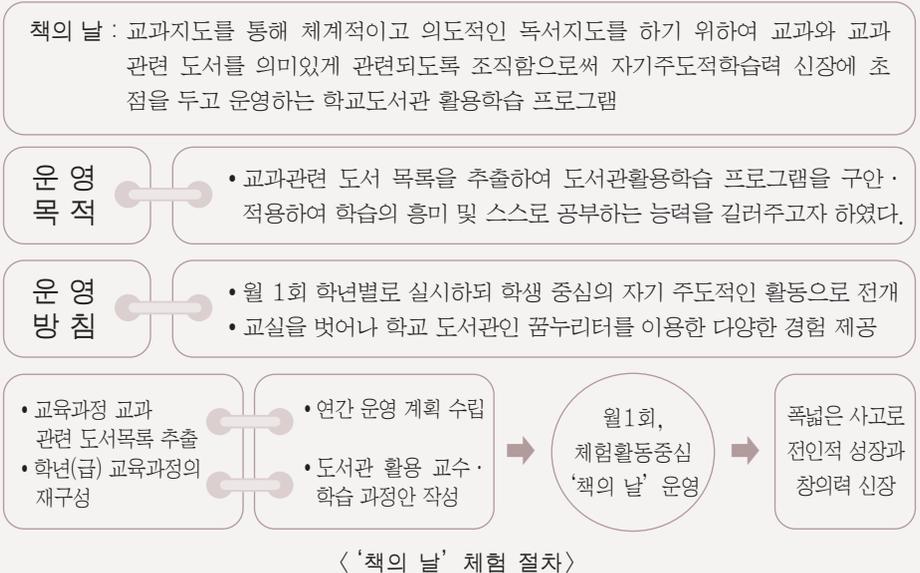


하 옥 진  
창원 대원초등학교 교장

## I. 펼치며

‘책을 읽는 자는 꿈을 이룰 수 있다’ 지식이 부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독서는 개인, 학교, 사회 국가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제 학교의 독서교육은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와 교육적 필요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적 독서교육의 시작을 대원 꿈누리터에서부터 시도하였다.

## II. 이렇게 실천했어요



### 1. 도서관 활용 수업(LAI) 여건 조성

#### 가. 수업지원중심의 도서관 구성

도서관 활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본교에서는 꿈누리터의 환경을 정선하고 교과과관련 도서 확보와 도서관의 공간을 수업지원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꿈누리터(출입구)



지혜의 숲(교수·학습공간)



책이랑 나랑(서가·검색대)



e-Book(전자책)



도란도란(브라우저코너)



상상의 샘(영상공간)



지식의 숲(자료제작공간)



그루터기(안내데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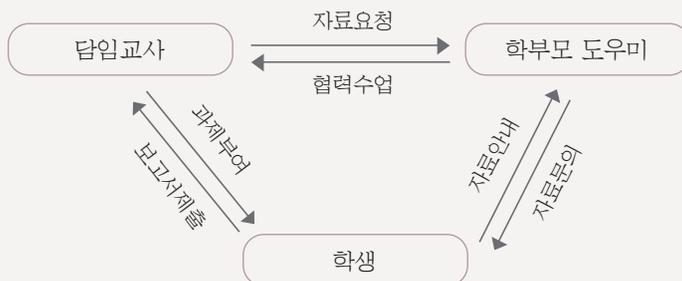


열람공간

〈그림1〉 꿈누리터 도서관 공간 구성

#### 나. 담임-학부모 도우미 사서교사활용 수업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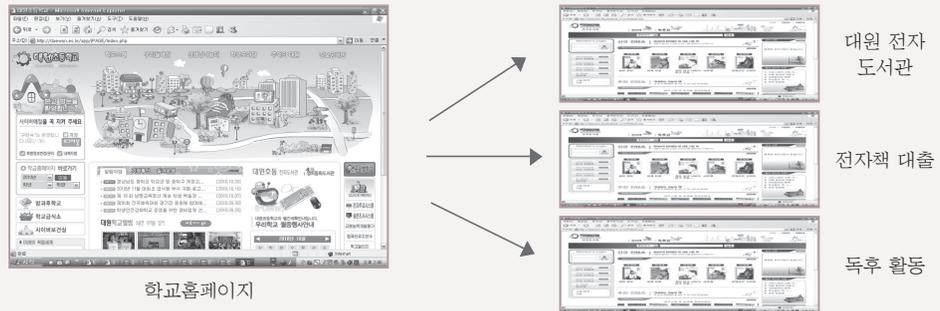
도서관 활용수업을 위해 담임-학부모 사서 도우미를 활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교과수업을 위한 자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수업자료를 담임교사에게 의뢰받아 단원별로 set화하기 위해 학부모 도우미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림2〉 본교 담임 - 학부모 사서 도우미활용 수업 과정

### 다. 학교홈페이지 개편

학교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지난 7월부터 대원 전자도서관 배너를 설치하여 e-Book 코너로 직접 링크시켜 아동들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도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여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도서관은 학교도서관 못지않게 대원 학생들의 생각을 키우는데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림 3〉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사용 구조도

## 2.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단위 재구성 및 교과관련 도서목록 추출

교과지도를 통해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독서지도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교과관련 도서를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학년별로 교과 관련 도서목록을 추출하여 관련도서를 수업에 수시로 활용하도록 목록화 하였으며, 학급에서 관련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학교에서 같은 책을 동일 기간에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급별로 도서관 사용 시기를 재조정하거나, 관련도서를 달리하였다.

해당 학년	분석교과	분석 내용
1 ~ 2학년	국어, 수학	· 학습목표, 독서과제, 관련도서, 책의 형태, 심화독서자료
3 ~ 4학년	국어, 미술	· 학습목표, 독서과제, 관련도서, 책의 형태, 심화독서자료
5 ~ 6학년	국어, 사회, 과학	· 학습목표, 독서과제, 관련도서, 책의 형태, 심화독서자료

## 3. 도서관 활용 수업모형 설정

가. 교수·학습 유형에 따른 e-Book 활용 수업모형 설정

### 1) 수업모형 설정 방법

교사용 지도서의 국어과 교수·학습유형인 직접교수법, 문제해결학습, 전문가 협력학습, 창의성 개발학습, 역할놀이 학습, 가치탐구학습, 반응중심학습의 개괄적 안내를 기초로 하고, 여러 가지 독서지도 방법에 맞는 독서지도 이론 및 수업모형을 근거로 하여 교수·학습절차를 변형하여 설정하였다.

2) 교과 선정

전 교과와 도서관활용 수업은 진도에 맞는 책을 동시에 대출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독서를 통한 과제제시와 교과와의 수업관련이 밀접한 국어, 도덕, 과학, 사회과를 선정하였다.

3) 도서관 활용 수업모형 유형

독서과제 유형별로 관련 교수·학습 모형을 분류하고 e-Book 활용 수업모형을 구안하였다. 구안된 수업모형을 바탕으로 일반적 수업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4〉 e-Book 활용 수업의 일반적 절차

4. 교과연계 도서관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구안·적용

구안된 도서관 활용 수업모형을 수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도서관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 국어, 도덕, 사회, 과학 교과에 한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교수·학습과정에 필요한 독서과제를 선정하고 독서과제 학습지를 구안하였으며, 독서 과제학습지는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와 같이 수업과정에 따라, 책을 읽기 전, 읽기 중, 읽은 후와 같이 독서과정에 따라 적용하였다.

Ⅲ. 닫으며

“오늘날 나를 만든 것은 동네의 도서관이었다. 훌륭한 독서가 되지 않고는 참다운 지식을 갖출 수 없다”라고 말한 빌게이츠, 이제 대원 꿈누리터에서 책과 함께 즐거운 수업으로 커가는 대원 학생들은 제2의 한국의 빌 게이츠로, 우리들의 미래로 키워나갈 것이다.

# 함께해서 행복한 학교 도서관 황매꿈터



허 남 수

합천 가회초등학교 교사

가회초등학교 작은 도서관 황매꿈터는 합천 황매산 자락의 모든 이들의 마음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큰 샘물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책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교양 및 문학, 사회, 과학 서적들을 7천 권 이상 갖추고 있어, 귀농을 꿈꾸며 황매산 자락에 터를 잡은 사람들과, 조상대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 또 이들 속에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미래 가회 꿈동이 39명의 어린이는 우리학교 작은 도서관 황매꿈터에서 영혼을 살찌우고 있습니다.

## 1. 내 스스로 책 읽는 습관 만드는 독서교육

황매꿈터는 학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도서관에 들어서서 책과 마주하게 되며 마치 자신의 방처럼 드나들 수 있는 정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엔 전담 사서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빌려볼 책을 직접 DLS를 통해 대출 하고 반납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꼬마 사서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연간 독서 교육계획을 세워 스스로 하는 아침독서 10분, 독서감상화 및 감상문 쓰기 대회, 독서 골든벨을 올려라, 다 대출자 시상 등 다양한 독서 활동으로 내 스스로 책 읽는 습관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DLS에서 스스로 대출〉



〈어머니께서 읽을 책 대출〉



〈스스로 하는 아침 독서 10분〉

## 2. '작은 책 발' 주민 책읽기 모임

작은 책발은 가회주민 책읽기 모임입니다. 학교 도서관 DLS에는 50여 명의 지역주민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병협 회장님 외 11명의 회원이 매달 첫째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독서 동아리 모임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책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를 정하고 바쁜 일상과 농사일 속에서도 틈틈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서 동아리 모임을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되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귀농인과 지역민 신·구세대 간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책발 가회 주민 책읽기 정기 모임〉

## 3. 가회 꿈꾸는 지역아동센터 이동도서관 운영

가회면 덕촌리에 자리 잡은 꿈꾸는 지역아동센터는 2003년부터 가회어린이의 방과 후 활동을 돕는 기관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은 학교 일과를 마치면 전교생 대부분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부족한 독서량을 채워 주기 위해 이곳에 학교도서관의 책을 대여하여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권장해 주신 도서를 읽으며 학교의 이동도서관 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독서로 꿈을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꿈꾸는 지역 아동 센터에서 이동 도서를 통한 독서〉

이와 같이 가회 초등학교 도서관 황매꿈터는 작은 산골 마을 사람들의 문화공간이며 지식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읽을 책을 가방에 넣는 모습을 볼 때면 책 읽는 가족의 아름다운 한 때가 그려집니다. 오늘도 학교도서관은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며, 지역주민과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샘물을 길어 나르고 있습니다.

# 책을 읽자, 생각을 나누자, 글을 쓰자.



하 정 훈  
거제 양지초등학교 교사

## 1. 들어가며

우리 아이들은 컴퓨터, 대중매체 등을 통해 즉흥적이고 감각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하여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학교교육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지식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통한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에 본교는 보다 체계적인 독서논술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하여 창의·비판적 사고에 의한 논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독서논술 교육을 하고 있다.

## 2. 독서·논술 지도의 실제

### 가. 독서·논술 지도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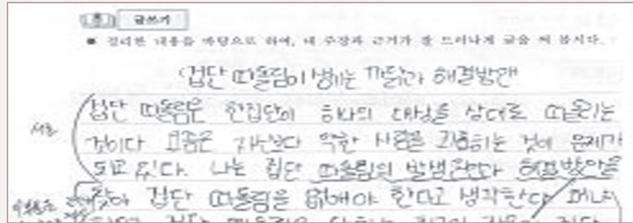
교실에 학급 문고를 만들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책을 돌려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서실에는 독(讀)·토(討)·논(論)의 장을 마련하여 도서관 활용 수업으로 교수·학습의 장, 독서의 장, 문화공간의 장으로 교실수업의 물리적, 공간적 제한을 벗어난 학습 환경을 통해 교육의 장을 확대하여 사고의 폭과 경험을 넓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 홈페이지에 독서논술 자료실, 교사연수, 사이버 독서·논술을 추가하여 사이버 상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근거를 대며 글로 쓰는 활동을 통하여 독서·논술 기초 능력을 향상시켰고, 학생의 논술에 교사의 첨삭지도를 하여 논술력이 향상했다.



### 나. 독서·논술 학습장 제작 및 활용

국어, 사회, 과학, 도덕 교과서 위주의 필독독서를 선정하여 ‘독서·논술 학습장’ 제작에 활용하였고, 1, 2학년은 다양한 독후 활동, 3, 4학년은 문제 풀이 등을 통한 책의 내용 알아보기, 간단한 즐거리, 주제와 관련된 내 생각 쓰기 등 쉽게 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5, 6학년은 예문, 생각 꺼내기, 생각 다지기, 글쓰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 다. 독서·논술 지도 프로그램

#### 1) 독서·논술학습의 단계

학습 목표 인지 및 흥미유발 → 학습 활동 안내 → 독서·논술 활동하기 → 학습 정리 및 심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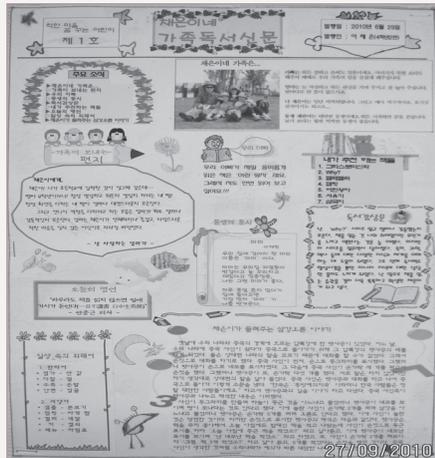
단 계	교수· 학습 과정	유의 점
학습 목표 인지 및 흥미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목표 제시</li> <li>• 흥미 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을 선정 할 때는 아동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다.</li> </ul>
학습 활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활동에 대한 자세한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와 학생, 학생들 간에 토론을 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li> </ul>
독서·논술 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교과관련 독서·논술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활동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준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한다.</li> </ul>
학습 정리 및 심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을 마무리 하는 다양한 발표</li> <li>• 차시 예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발표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li> </ul>

2) 교과관련 독서·논술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독서논술 교수·학습지도안 작성하였다.  
파란 눈의 내 동생

교육 과정		관련 도서	
교과	단원	교과서(쪽)	도서명
국어(읽기)	셋째마당 삶과 이야기 2. 아름다운 삶	교(24-29)	개똥이 이야기
♣ 논술주제 :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하는 이유를 써 봅시다.			
국어(읽기)	셋째마당 느낌과 표현 2. 다양한 표현	교(119-127)	파란 눈의 내 동생
♣ 논술주제 : '파란 눈의 내 동생'의 일부분을 읽고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 봅시다. 상상한 내용을 감각적 표현이 잘 드러나도록 주의하며 적어 봅시다.			

### 라. 다양한 독서·논술 활동 전개

도서실 활용 수업, 가족 독서 신문 만들기, 독서퀴즈, 양지 독서 행사, 마인드 맵 활용 독서·논술, 양지 통합논술 대회를 실시하였다.



### 3. 맺으며

독서·논술 지도를 위한 교육환경 구성, 교사 연수 활동의 활성화, 독서·논술 학습장 제작, 활용으로 독서·논술 지도를 위한 기반 환경이 조성되었고, 교과관련 독서·논술 지도 프로그램 구안·적용으로 독서·논술 지도를 위한 체계 및 일반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다양한 독서·논술 활동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과 문제해결력의 함양 및 창의·비판적 사고를 통한 논술력 향상을 가져왔다.

전/문/가/초/대/석



안 현 철

국립진주산업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 학교조경 및 학교 숲 관리 이렇게.....



경상남도 초·중등학교의 전반적인 조경 및 숲의 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분석·평가한 연구 보고서는 아직 접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조경과 학교 숲은 그 학교의 역사와 함께 지역적 특성, 기후 및 지형등의 입지조건에 따라 교사를 중심으로 한 평면적인 화단과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나마 역사가 오래된 학교의 경우에는 몇 그루의 노거수가 띄엄띄엄 배치되어 있을 뿐 숲다운 숲으로 조성된 학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 조경 및 학교 숲 관리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면서 우선, 조경의 일반적 개념과 학교조경의 의의, 학교조경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최근 정부의 중점추진사업의 하나인 도시 숲(학교 숲, 전통마을 숲 등)으로서의 학교 숲의 중요성과 조성사업배경 등의 순서로 글을 쓰고 조경수목과 숲의 기술적인 조성·관리 전반에 대하여서는 다음 순서의 글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 1. 조경의 일반적 개념

조경의 해석은 학자간에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간략하게 요약하면, 대자연에서 얻어진 조경재료를 최유효사용의 원칙에 따라 인간의 생활과 목적에 알맞게 응용하여 감상면에서나 기능면에서 인간의 힘과 지혜와 기술을 가미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종합적 예술이라 할 수 있다.

## 2. 학교조경의 의의

학교조경은 학교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활동을 통한 체력단련, 지능개발, 다양한 기능의 양성과 친환경적인 생활태도를 갖도록 하여 인격을 형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에서의 학교조경은 학생들의 교육장소로서의 중요성과 함께 지역주민의 휴식을 통한 생활 안정과 산림휴양을 통한 문화창달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 3. 학교조경의 구분과 고려사항

학교의 조경은 연령과 성별, 신체장애자를 위한 특수교육별로 달라지는데 이를 구분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남자중·여자중), 고등학교(남자고·여자고), 단과대학, 종합대학, 농아학교, 맹아학교, 저능아교육을 위한 학교를 들 수 있으며, 조경은 이들 학교에 따라 동선의 위치, 조경양식과 수목의 배치, 시설물 설치 등의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교실을 중심으로 한 정적인 조경과 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동적인 조경으로 나누어 조성하는 것으로 이때 여러 가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들어본다.

### 가. 정적인 학교조경 작업 시 유의할 점

- 운동장과 교실 사이에는 창문에서 내다보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교목(키큰나무)과 관목(키 작은 나무)을 조화있게 식재하여 차폐 림을 조성한다.
- 창문이 남향에 있을때에는 낙엽활엽수인 화목류를 식재하면 좋다.
- 도시지역이나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지엽이 밀생한 수목을 식재하여 방음효과를 얻도록 한다.
- 교실로부터 멀리 있지만 혐오시설이나 차량, 기타 시설물에 시선이 빼앗길 우려가 있는 곳은 차폐 림을 조성한다.
- 수종의 선정은 가급적 향토 수종 중에서 골라 심는 것이 좋고 관리가 어렵지 않은 수목이 좋다.
- 남향이나 일광이 충분한 곳에는 양수를 심고 교실 뒷편이나 일광이 부족한 곳에는 음수종에서 적합한 수종을 골라 심어야 한다.
- 지하수위가 높거나 습한 지역에는 습지에서도 잘 견디는 수종을 골라 심어야 생육에 지장이 없다.

### 나. 동적인 학교조경 작업 시 유의할 점

동적조경에는 운동시설을 비롯하여 각종 오락시설, 자동차주차장, 회전로, 분수, 수영장, 퍼글러(녹랑), 경작원, 관찰원, 사육원 등이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 각종 운동시설이 구비되어야하며 운동장 주변에는 관람석을 만든다.
- 수영장은 너무 개방된 곳은 피해야 한다.
- 회전로 같은 곳에는 원형화단이나 분수대를 설치한다.

- 주차장은 회전로 부근이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주변에 설치한다.
- 퍼글러는 교사로부터 보이지 않은 한적한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 분수는 조경부지의 축을 이용한 중앙에 위치하게 한다.
- 기상관측 시설물인 백엽상, 우량계, 풍향계, 풍속계 등은 장애물이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
- 식수대, 화장실, 공중전화, 우체통, 매점, 진료소, 세척장 등은 요소요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연못, 절개지 같은 위험한 곳에는 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어야 한다.
- 맹아학교의 경우에는 동적행동에 의한 대응물체에 신경을 써야한다.

예를 들면 맹인들이 다니다가 부딪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모서리가 없어야 한다든지, 떨어질 우려가 있는곳, 빠질 우려가 있는 연못, 웅덩이, 화장실 등의 구조에 깊은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 4. 학교 숲의 중요성과 조성사업 배경

학교 숲은 기초성된 조경수 외에 학교 주변 자투리땅에 새로이 숲을 조성하여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녹지량을 확충하여 학교 옥외 환경을 개선하며, 학생, 교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제공을 위해 도시 숲 조성과 함께 산림청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에게 자연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정서함양과 친환경적인 태도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1999년 '생명의 숲'에서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시작하여 2001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의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 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시작하여 수도권 지역의 10개 학교에서 출발한 학교 숲 조성은 2008년까지 701개교를 선정·지원하고 2009년도에도 109개교를 신규선정·지원하고 있다.

학교 숲의 조성은 2008년까지 생명의 숲에서 대행해오다 희망학교의 증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사업확대 등의 이유로 2009년도 부터는 전국조직망을 갖춘 '산림조합중앙회'로 사업대행주체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학교 숲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공모를 실시,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숲 선정위원회'에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최종 선정된 학교는 3년간 총 3천만원의 조성비와 함께 민간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지원을 받게 한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확충하고 도시의 부족한 녹색공간을 늘려나가며,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숲을 확대·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도 2010년도 도시 숲(학교 숲, 전통마을 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숲 조성대상학교로 4개 시·군에서 4개 초등학교(진동초등, 예하초등, 아주초등, 부림초등)를 선정하여 학교 숲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 생활의 매 순간이 교육자료가 되어야



원 순 련  
거제 동부초등학교 교감

30년이 넘게 교사로 있으면서 교실 현장에서 참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초년병 교사 시절은 모두 시행착오로 끝난 것 같다. 그런 선생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았던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여 자기의 위치에서 뿔을 다하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도 신기하며, 아직 어린 학생인 녀석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내 허물을 덮어둔 채 행복한 웃음을 보내는 것이 고맙기만 하다. 그런데 졸업생들이나 답임을 맡았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수업이 참 재미있었다. 녀석들이 내 실수를 탓하지 않고 재미있었던 장면만 기억해 주는 것이 감사하며 그 녀석들이 재미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아마 수업시간에 활용한 수업자료가 아니었나싶다.

교실 현장의 모습이 변화하려면 교사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한 시간 수업이 의미 있고 재미있는 수업이 되려면 아이들이 꼭 빠져들 만한 사건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수업자료이다. 그 수업자료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이거나, 조작할 수 있는 자료이거나, 아니면 들어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 자료를 잠시만 사용할 수 있다면 아이들의 40분 수업은 정말 활기차고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업방법개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자료를 우리는 어떻게 생산하며 사용할 수 있을까를 다같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 1. 교사는 잡동사니 장사가 되어야

우리 가족들은 지금도 왜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들을 저렇게 쌓아놓느냐고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야단을 친다. 참고엔 박스마다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학교를 옮길 때마다 수업에 사용했던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들고 간다. 식구들은 창고를 어지럽힌다고 야단이지만 그런 물건들을 수업시간에 사용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다.

우리반 아이들이 학급학예회를 할 때 잠을 자지 않고 만들었던 발레복, 장원급제 백일장을 한 후 장원 학생에게 써어주는 어사화, 동화구연 때 사용하는 동물 머리 인형, 그리고 냉장고 박스를 이용하여 만든 인형의 집 등 창고가 넓어서 망정이지 좁은 집에서는 한뼘 할 물건들이다.

이런 물건들은 수업 중 수시로 쓰인다. 낡았지만 즐거운 생활시간에 발레복을 입고 춤을

추는 아이들은 금박이 붙은 발레복이 10년도 넘는 것이며 그 옷이 얼마나 조잡하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모른다. 그래도 그냥 발레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옷을 입고 공부를 하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른다. 특히 남자아이들이 더 그 옷을 입고 신나게 춤을 추었다.

내가 만난 아이들은 매월 한 번씩 장원급제 백일장을 실시하는데 장원을 한 녀석에게는 장원급제 ‘어사화’를 씌워주고 상장을 준다. 아이들은 그 장원급제 어사화를 한 번 써 보는 것이 소원이란다. 어떤 녀석은 꼭 그 어사화를 갖고싶다고 하여 주어버리고 몇 번이나 새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아이들은 그 어사화 때문에 동시창작시간을 얼마나 심도 있게 보내고 있는지 모른다. 요즈음은 각종 전자제품 박스가 정말 단단하고 멋지다. 그 박스를 칼로 창문을 도려내고 예쁘게 대문을 오려낸 후 지붕만 씌우면 1, 2학년 학생들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집이 된다. 이 집을 아이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벽을 구성하고 한지로 커튼을 만들어 붙이면 아이들이 몇 달은 사용해도 끄떡없다. 그리고 동물 머리 인형은 필수적이다. 이 인형을 이용하여 교사는 온갖 음성을 변조해 가면서 아이들의 동기유발 학습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만든 시화작품도 가득 쌓여있다. 잘한 것만이 자료가 아니다. 잘못된 것도 큰 자료가 된다.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 작품들을 보면 어떤 것이 좋은 작품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교사는 온갖 잡동사니를 팔고 다니는 박물관수가 되어야 한다. 그 잡동사니들은 언제 어디서든 참고에서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학습자료가 되어주고 있음을 오래된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다.

## 2.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요즈음은 너도 나도 어디든지 여행이 자유롭고 여행지에서 본 것을 기록으로 남길 장비를 대부분 다 갖추고 있다. 여행지에서 본 것들은 아이들의 수업에 대단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내 고장에서는 보기 힘든 자료일수록 이 자료는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요즈음은 자기 고장 중심의 사회와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타 지역에 대한 학습활동을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럴 때 타 지역의 자연이나 유적지, 생활모습 등을 카메라에 담아 아이들에게 순간순간을 비추어 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의 자연환경이나 유적지, 그리고 여기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자기들과 같은 학생들의 생활모습을 담아온다면 얼마나 매혹적인 수업자료가 될까?

## 3. 순간 순간을 놓치지 말고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보면 참으로 놓치기 아쉬운 장면이 나온다. 이런 순간을 포착하여 두면 수업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 실수를 했던 장면, 다른 아이들은 다 장난을 치면 놓고 있지만 엉덩이를 치켜들고 마루를 닦는 아이, 아침 조례 시간에 반듯한 모습으로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잘 듣고 있는 장면, 운동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아이 등 정말 놓치기 아까운 장면들을 교사가 학생들 몰래 기록하여 수업 장면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이때엔 잘 못하는 경우보다 잘하는 장면을 기록하여 사용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 4. 우리반 모두가 텔런트

아이들과 수업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두는 것도 좋은 자료가 된다. 아이들과 함께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 놓고 우리반 친구 모두가 텔런트가 되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을 미리 안내한 후 수업장면을 3, 4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도 참 좋은 자료에 속한다. 몇 년 전 우리반 아이들과 함께 제작한 장원급제 백일장 장면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글짓기 시간이면 활용하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작품을 만든 후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그 자료를 보여 달라고 졸라대곤 했다. 자기들이 한 대사, 자신들의 표정, 그리고 친구들이 나타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른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모두들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 이 수업 장면에서는 모두 주인공이 되다보니 아이들 모두가 그 자료를 소중하게 여겼다. 그래서 모두 CD로 제작하여 집으로 가져가 부모님과 함께 즐겨본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다.

#### 5. 심성을 움직이는 동시자료 활용

각 학년의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1, 2학기를 합하여 동시 작품이 28수 정도는 수록되어 있다. 이 동시는 국어교과서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교과서에 동시를 수록해 놓은 것은 동시가 아이들의 심성을 움직이는 좋은 자료가 되며, 간결하고 함축된 문장 속에 그 단원에서 지도할 학습목표를 안내하는 좋은 동기유발 자료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이 자료를 잘 활용하여야 한다.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교사가 우선 읽고 이해하고 느낀 후, 이 동시 한 편이 이 단원의 어떤 수업 목표를 위하여 수록된 동시 인지를 이해하고 수업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수업 전 교사가 낭독해 주거나, 학생들의 낭송을 통하여 그 단원의 학습 동기가 되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3학년 2학기 과학 3단원을 보면 공재동 시인이 쓴 '바람'이라는 시 한 수가 들어있다.

나뭇잎이 한들한들 두 손을 휘젓습니다/  
바람이 아마 길을 묻나 봅니다/  
꽃들이 살레살레 고개를 흔들니다/  
꽃들도 아마 모르나 봅니다/  
해는 지고 어둠은 몰려오는데 바람이 길을 잃어 걱정인가봅니다/

바람이라는 단원을 공부하기 전 이 동시 한 편을 교사가 낭송한 후 지금 바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람이 가는 방향을 풍향이라고 하며, 바람이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는지를 풍속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 한 편을 통하여 지도한 후 풍향과 풍속에 대한 학습한다면 얼마나 좋은 재료가 되는가? 이렇게 아이들의 심성을 움직여 주는 동시자료를 교사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성주의를 외친 비고스키는 생활의 매 순간이 교육이라고 하였다. 교사는 매 시간마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활용하는 자료로 보는 눈이 필요하며 그것들을 자료로 묶어서 보물을 만들어 두고 하나하나 꺼내어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부지런함을 보여야 한다. 그 자료를 모으는 일부러가 바로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한 학습방법 개선의 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친 후의 소감은 수업 시간이 즐거워야 학습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학습시간이 즐거워야 아이들이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게 되고 학습시간이 즐거우면 학습효과는 저절로 올라가며, 학습효과는 교사가 마련한 다양한 자료가 큰 몫을 하게 됨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자연에서 배우는 유아과학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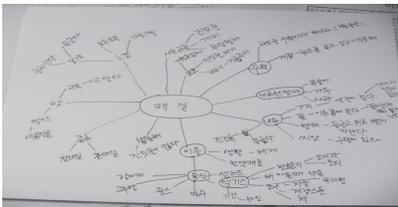
이 희 숙  
통영유치원 교사

유치원에서의 과학교육은 유아들이 주변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이들의 타고난 호기심을 활발하게 유지하도록 돕고, 격려해 주고, 자신이 사는 세계에 대하여 즐겁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봄을 맞이하여 ‘동식물과 자연’이라는 주제를 전개하기 위해 계획을 하던 중 여러 가지 봄꽃과 열매를 관찰하며 과학적 탐구활동에 적합한 ‘매화나무에서 매실이 열리기까지’라는 테마로 계획하여 활동을 실시하여 보았다.

### 1. “매실” 활동 주제선정 이유

봄이 되어 유치원 주변의 환경을 산책하면서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인 매화를 발견하면서 여러 종류의 봄의 꽃을 비교해 보고, 꽃에 열리는 열매의 변화 과정 탐색을 통해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이로움과 생태계를 통해 자연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 2. 주제망 작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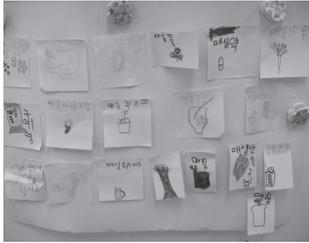
선정된 주제는 교사가 사전에 주제 망을 계획함으로써 주제가 전개되어 나갈 수 있는 내용의 범위를 예상하고 조직하여 작성하였다.

### 3. 주제 전개과정

주제 전개는 유아들의 매실에 대한 경험 나누기로부터 시작하여 교사가 준비한 매실 동영

상을 소개하고, 우리 유치원의 매화나무에 봄에 꽃이 피어 매실이 열려있는 나무의 관찰과 매실 따기 활동으로 전개하였다.

매실을 이용하여 통합적인 활동(매실과 다른 과일 비교하기, 매실 액 만들기, 매실 약기 만들기, 손으로 만져 찾기 게임, 동시 짓기, 과수원 만들기 등)으로 전개 하였다.



1. 매화나무, 매실, 사전경험 나누기



2. 매실 실물자료 소개하기



3. 우리 유치원 매화나무에 열린 매실 따기



4. 매실 열매와 잎 비교, 탐색하기



5. 매실을 이용한 매실액 만들기



6. 매실을 이용한 촉감놀이

#### 4. 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이 변화 되었어요

유아들이 관심 있어 하고, 경험을 가진 ‘매실’ 주제선정은 활동에 흥미를 주어 과학 활동 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육과정 전반을 통한 통합적인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또한, 활동과정에서 유아들이 확산적인 놀이 활동을 창안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교 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정운영  
양산 화제초등학교 교사

글 실는 순서	
1	학년말 업무
2	학년 초 업무 계획
3	업무결재 관련
4	학부모 서비스 확대 방안
5	출결 및 전출입
6	수행평가 및 성적처리
7	학적관리(유예, 면제, 정원외)
8	유학생 학적관리
9	각종 누가 기록 관리
10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11	차세대 교무업무시스템

활용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NEIS
----	------------	------

교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재의 열번째로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에서의 3대 법정장부(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졸업대장) 중의 하나로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인 동시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작성의 강제성이 있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법정장부는 기록물 관리 지침에 따라 준영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158호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 1. 영역별 입력 확인

- ▶ [학생부 자료 반영/검증] 학생부 작성시 누락된 항목이나 수정 해야할 사항을 검증합니다.
- ▶ 검증 결과 오류가 있는 항목은 오류존재라고 표시됩니다. 오류존재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서 누락된 항목이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우측에 나타납니다. 오류를 수정

하고 다시 학생부자료 오류검증을 처리하면 됩니다.

- ▶ 검증 결과가 완료되면 학생부 자료를 반영하면 됩니다.

## 2. 통지표 작성

- ▶ 통지표 출력항목 : 교과학습발달상황은 1회/1년 생활통지표를 작성하는 학교에서, 학기말 종합의견은 1회/1학기 생활통지표를 작성하는 학교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 ▶ 가정통신문 등록 : 가정통신문은 개인별 입력과 반별 입력을 혼용하여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학년 반 학생 전체에게 동일한 내용을 입력한 다음 저장하고, 다시 학생 개인별로 가정통신을 입력하면 통지표 출력시 두 내용이 모두 인쇄됩니다. 반별을 선택하면 해당 학년 반의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 3. 학생부 마감

- ▶ 학생부 자료 반영 : 반별 학생부 자료가 마감 처리되지 않을 경우는 해당 반의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학생부자료 오류검증] 화면에서 해당 오류를 수정한 다음 마감 처리를 해야 합니다.
- ▶ 학생부 마감관리 : 반별 마감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해당 학년의 반 모두 마감 처리가 되었을 때, 전체를 선택하여 마감합니다. 마감되지 않은 반이 있을 경우 마감된 반만 따로 선택하여 학생부 마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4. 학생부 정정대장

학생부 정정대장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부와 마찬가지로 법정장부로서 훈령의 양식에 맞도록 작성하고, 정정대장과 증빙서류를 합철하여 학생부와 함께 준영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학생부/통지표]-[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정정대장등록]
- 정정하려는 학생의 이름을 입력하고 <학생찾기>
- 선택한 학생이 정정대장 화면에 나타나면 <등록> 버튼을 클릭
- {정정대장 등록} 팝업 창이 나타나면 왼쪽에서 정정할 항목 클릭
- 오류내용, 정정내용, 정정사유를 입력하고 <저장>
- 학생부 정정대장 등록 화면에서 학생이름 클릭
- 항목별로 <등록> 버튼 또는 <저장> 버튼을 이용해 수정한 내용 반영
- 팝업 창이 나타나면 필요한 내용을 정정한 다음 <저장>
- 결재 내역에 포함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확인>
- 체크 박스를 클릭해 결재를 상신할 학생을 선택한 다음 <기안문 작성 및 상신>

- ▶ 각종 보조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학교의 규정에 따라 보조부의 정정 결재부터 시행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합니다.
- ▶ 졸업생의 경우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때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사유를 '인권침해 소지'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내용 비교표 ◆

구분(조항)	개정(2010)
전 · 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출 시에는 교무업무시스템에 전출일 현재의 각종자료를 입력하여 교무업무시스템을 통해 전입학교의 요청을 받아 전입학교로 전출 당일 전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자료(원본)는 정리하여 전입학교로 송부하여야 한다. 타교 재취학 · 편입학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다.</li> </ul>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명주소법(법률 제9774호)에 따라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으나,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주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소는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주소 체계(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에 따라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li> <li>• 부모의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기록해야 할 사항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하되,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함(가족관계증명서 참조).</li> </ul> </li> <li>•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입력한 후 정정한다(증빙서류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소변경은 별도의 정정절차 없이 교무업무시스템의 '누가주소등록' 메뉴에서 처리함.</li> <li>※ 신입생에 대해서는 입학 후 인적사항을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므로 학생의 성명개명(기본증명서 참조) 이외에는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에서 직접 정정할 수 있음.</li> </ul> </li> </ul>
학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예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로 미루는 것으로 다음 학년도 초에 재취학 안내를 하여야 한다(질병으로 인한 유예, 무단장기결석으로 인한 학교장 직권유예, 미인정 유학에 따른 무단결석 처리 후 유예 등을 포함).</li> <li>•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 유학, 정당한 해외 출국(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으로 해외파견 · 부모의 해외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 등 합법적 사유로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li> <li>• 의무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한다.</li> </ul>

구분(조항)	개정(2010)
수상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에서 주최 및 주관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과 학교내 선발 등을 거쳐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에 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인 경우에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실적에 한한다. 다만,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은 입력하지 않는다.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 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li> <li>• 교외상의 학교장 추천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교내 예선대회, 추천심사위원회 등의 선발 과정을 통해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li> <li>• 당해 학교의 교과 개설 여부에 관계없이 교과와 관련된 어떠한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입력하지 않는다.</li> </ul> <p>※ 2009학년도까지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실적은 입력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와 관련된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진로지도상황, 창의적 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교외체험학습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li> </ul>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발표에 따른 외고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에 따른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으로 초·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란은 2010학년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입력하지 않는다. 다만, 2009학년도까지 입력 내용은 유지하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종전과 같이 입력한다.</li> <li>• 초·중학교에서 2010학년도 이후부터 취득한 자격증 및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진로지도상황, 창의적 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교외체험학습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다만, 고등학교에서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입력한다.</li> </ul>
독서활동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발표에 따른 외고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에 따른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으로 중학교의 '독서활동상황' 란을 신설하여 독서활동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2010학년도 이후부터는 모든 학년에 적용하게 됨).</li> </ul>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 수료에 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무업무시스템 입력용 사진의 파일용량은 50KB(JPEG 형식 기준, 해상도 300dpi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높게 설정한다.</li> </ul>
자료의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무업무시스템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학생은 업무승인 후 전산자료로 보관하되, 학업 중단(면제·유예, 정원의학적 관리, 자퇴, 퇴학 등) 시에는 출력하여 보관한다.</li> <li>-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업무승인 후 학교생활기록부 I·II 모두를 출력하여 보관한다(전자문서와 종이문서로 동시 관리).</li> </ul> </li> <li>• 졸업대장은 졸업과 동시에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업무승인 후 출력하여 보관한다(전자문서와 종이문서로 동시 관리).</li> </ul>

# 리야드한국학교 소개



이 문 수

리야드한국학교 교장

## 1. 개관

리야드한국학교는 1979년 4월 24일 젃다(Jeddah)한국학교 리야드분교로 대한민국 문교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개교하였다가, 1981년 3월 20일에 리야드한국학교로 독립하였다. 1979년 리야드분교로 개교할 당시 학생 수는 4학급에 40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1984년에는 유치반을 개설하는 등의 노력으로 5년 동안 200여 명이 증가하여, 1985년에는 학생 수가 246명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에는 주재국의 경제 침체에 따른 교민 수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08년에는 학생 수 감소로 폐쇄되었던 유치반을 다시 개설하고 학교 버스를 교체하는 등의 노력으로 학생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알 아르묵(Al Yarmook)에 있는 현재의 학교로 이전하여 학교 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주재국 정부의 인가를 갱신하는 등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2010년에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주말학교를 개설하여 현지 청소년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애국심을 심어 주고 있다. 2010년 현재까지 27회 졸업식에 280명의 초등학교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향후, 주재국의 건설, 전자, 에너지 등의 분야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로 학생 수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 현황

2010년 현재 교직원은 정부과건교원으로 교장 이문수(李文洙) 1명과 현지채용교사 5명 외국인강사 2명, 태권도 사범 1명, 학교 기사 1명 등 총 10명이다. 학교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대사관, 교사회 등의 심의 및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다.

학교의 건물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교실(6), 운동장(1), 강당(1), 식당(1), 영어실(1), 도서실(1), 교무실(1), 과학실(1), 소형 실내수영장(1), 실내 놀이터(1), 유치반(1) 등을 갖추고 있다. 교사(校舍)의 임대료, 학교운영비, 교사 인건비 등은 우리 정부로부터 계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 3. 역할 및 사명

리야드한국학교는 우리 정부가 정규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리야드(Riyadh)에 있는 한국학교로 1970년대 후반부터 이 지역에 대한 인력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체류민 자녀들에게 초등 보통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교육활동은 국내 교육과정과 연계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현지 적응 교육의 일환으로 영어, 아랍어 등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민족 자긍심 함양을 위해 태권도, 전래놀이, 한자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특기 및 적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피아노, 골프, 농술, 독서, 컴퓨터, 퍼즐(놀이감 제작) 등을 지도하고 있다.

리야드한국학교는 지난 30여 년간 리야드 교민 사회의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 해왔으며, 현재도 일시 체류민·교민 자녀의 국내 교육과정 연계 교육, 민족 자긍심 교육, 국제화 교육,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살아있는 경제교육 이렇게 해 보자



장 치 환

거제 진목초등학교 교장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듯이, 우리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여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은 일상생활이다. 따라서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은 경제를 떠나서는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는 생활이다’라고 표현하고 싶다.

자라나는 꿈나무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을 길러 줄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공통된 관심사요 고민거리일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이들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교훈을 항상 잊지 않고 실천한다고 한다. 흔히 경제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경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며 합리적인 의사 결정(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경제교육의 목적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제개념을 형성하고 시장경제를 이해하며, 희망과 창의성을 길러주고 현실 생활에서 접하는 선택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경제인을 기르는데 있으며, 나아가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을 계발하는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딱딱한 소비자와 합리적인 경제인을 기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경제개념’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는 생활 그 자체다. 그래서 경제개념의 형성도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 이루어져야 한다. 즉,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체험함으로써 습관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 혼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과교육을 통해 배우고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체험활동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배워가는 것이 효과적이고 진정한 경제교육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부터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 경제교육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 2.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

우리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자(생활 필수품, 전기, 물 등)를 절약해서 사용하는 교육과 용돈절약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학교에서는 학교시설물과 각종 교구들을 아끼고 절약하는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며, 가정이나 학교에서 받은 경제지식을 바탕으로 그 범위를 넓혀 간다. 부모님과 함께 시장을 구경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구매 계획을 세우고 직접 물건을 구매해 보는 경험을 쌓으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자기가 구매한 상품에 대해 선택의 기준(가격, 품질, 디자인 등)과 구매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또한 가정에서 가르치는 밥상머리 경제교육에서는 용돈관리장 쓰기, 영수증 모으기, 주간 식단 짜기, 여행계획 짜기, 드라마 & CF 경제, 경제신문 & 책, 경제일기 쓰기 등을 통한 교육도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3. 내 것은 내가 지킨다(재산 개념 인식)

무상으로 증여되는 용돈과 노동의 대가이며 경제활동의 결과물인 소득을 구분할 줄 알게 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금전출납부를 기록하게 한다. 가정에서 자기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이가 ‘홈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천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저축을 통한 종자돈 마련은 물론 투자를 통한 재산 불리기를 통하여 자기 재산에 대한 애착과 재산 불리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 나아가 신용의 창출과 관리로 신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항상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마인드를 기르기 위해 자기 재산의 일정부분(10% 정도)을 따로 저축하여 이웃돕기나 사회 시설 등에 기부를 함으로써 나눔 정신을 실천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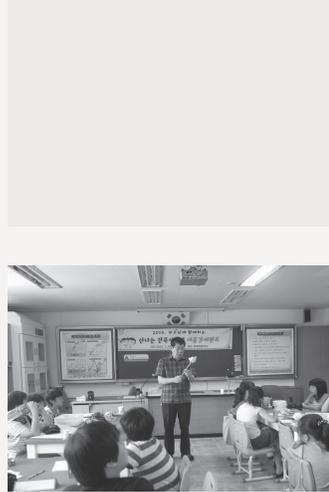
## 4. 계획성,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하게 한다

모든 계획은 항상 부모와 함께 세우고 ‘홈 아르바이트’ 또는 용돈 지급 등은 계약 또는 규칙을 꼭 마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약 또는 약속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구에 의하면 행동이 습관으로 변하는데 보통 3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계약이나 규칙이 쉽게 변경된다든가 용두사미가 된다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사전에 서로가 신중하게 검토하여 실천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5. 경제 캠프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실물경제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이론적인 토대를 세우기 위해 경제캠프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방학 동안에 고학년(5, 6년 중심) 위주로 운영되는 경제 캠프에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경제교육의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경제캠프에서 조별 활동은 문제해결력, 협동성 및 공동체의식은 물론 창의성 교육과 기업가 정신을 기르는데 좋은 방법이다.

우리 진목초등학교에서는 이번 경제캠프를 ‘부모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진목어린이 여름경제캠프’라는 타이틀로 운영하였다.



일 정	프로그램	강사	보조강사	비 고
7월 28일(수) 09: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A경제교육프로그램</li> <li>- 우리나라 -</li> <li>1. 기업의 형태 2. 기업의 자원</li> <li>3. 생산 4. 광고</li> <li>5. 나도 사업가</li> <li>■ 금전출납부(용돈기입장)</li> <li>■ 경제일기 쓰기</li> <li>■ 경제달인 도전(경제퀴즈)</li> </ul>	교장 장치환	서보미 외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크북</li> <li>▶ 경제일기</li> <li>▶ 금전출납부</li> <li>▶ 경제퀴즈 문제</li> </ul>
7월 29일(목) 09: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종자돈 만들기 (금융기관 견학 및 통장 개설)</li> <li>■ 증권거래소 견학</li> </ul>	교장 장치환	서보미 외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통장</li> <li>▶ 재래시장</li> <li>▶ 종자돈</li> </ul>
7월 30일(금) 09: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경제의 체험 (재래시장, 마트 등)</li> <li>■ 경제서바이블 게임 -나도야 사업가</li> </ul>	교장 장치환	서보미 외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돈 약간</li> </ul>

20명이 참여한 2박 3일의 과정 중에서, 첫째 날은 JA프로그램 중 5학년 과정(우리나라)을 기업의 형태, 기업의 자원, 생산, 광고, 나도 사업가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 금전출납부 쓰기, 경제일기 쓰기 및 홈 아르바이트 계약서 만들기 등을 하였다.

둘째 날에는 나의 종자돈 만들기로 금융기관을 견학하여 은행의 역할에 대한 설명도 듣고 스스로 1인 1통장을 개설하여 예금과 인출에 대한 경험을 하였다. 또 증권거래소를 견학하여 증권거래소의 역할과 증권투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자 모의투자를 해보기도 하였다.

셋째 날에는 시장경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재래시장 및 마트 등을 견학하며 실제로 구매 물품 목록 및 구매계획서를 작성하고 물품을 구입하여 각자 구입한 물건을 비교하며 선택과 구입 이유를 발표하기도 하여 살아있는 경제교육과 시장경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경제 서바이블 게임으로 ‘나도 사업가’라는 주제 아래 각 조별로 회사를 설립하고 물건을 생산하여, 광고전략을 세우고 회사와 제품을 선전하며 생산 제품을 판매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이 활동에 참여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보람을 안겨 주었다. 마지막으로 경제달인 도전시간에는 경제 퀴즈문제를 풀고 보상을 하는 시간을 갖고 수료증을 수여하며 2박 3일 간의 여름경제캠프 전 과정을 마쳤다.

끝으로 이렇게 흥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경제캠프를 하는 것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한 이론 교육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경제 캠프에 참가한 모든 학생, 학부모 및 보조교사들이 절실히 깨달았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 기술부 및 관련기관들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특히 경제교육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히 많은 금융기관과 관련단체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한국경제교육협회에서는 ‘아하경제’ 신문을 발행하여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은 물론 지방의 청소년들이 무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경제캠프를 많이 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동물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어린이 ‘또 다른 생명들’ 사육장으로 오세요



정연보

남해 설천초등학교 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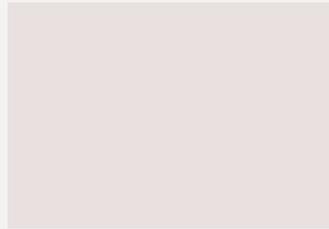
### 1. 동물에 대한 이해와 관심

요즘 어린이들은 동물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 동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손쉬운 방법은 그림책을 펼쳐보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되지만 가까이에서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키워본다는 건 힘들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동물원에 가거나 현장학습을 가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니 말입니다.



### 2. 또 다른 생명들(조류사육장)

설천초등학교에 오시면 여러 가지 조류들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던 지난 6월 다목적강당 건물 옆에 규모 30㎡정도로 모두 8칸의 격리사를 설치하여 손님 준비를 위한 부대 공사를 빈틈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생명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는 큰 기대 속에 ‘또 다른 생명들’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 3. 궁금해요 사육장의 동물친구들

사육장에는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오골계 등의 닭 종류를 비롯하여 멀리 인도나 동남 아시아, 아메리카 등에서 들여온 다양한 조류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황금계, 황자보, 백칠면조, 공작비둘기, 은계, 백실크오골계, 화이트킹비둘기, 긴꼬리 닭, 백공작, 연산오골계, 인도공작, 금계, 자바공작 등의 조류 12종과 유일한 포유류로 귀여운 앙고라 토끼 1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칠면조의 이상야릇한 머리 주름과 금계, 은계의 화려한 빛깔, 인도공작의 눈이 부시도록 하얀 몸색과 자바공작의 아름다우면서 위풍당당한 깃털은 아이들을 사로잡는 그 무엇인가를 기대이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원한 바람이 일렁일 때에는 오골계를 선두주자로 온갖 새들이 알을 낳느라 부산하다 보니 아이들이 알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 4. 이렇게 관찰해요

사육장은 학생들이 등하교 길이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물들이 너무나 신기했던지 한동안 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수업 시간이나 텔레비전에서 배우거나 본 내용을 자세히 관찰하는 시간으로, 제법 관찰하는 태도가 과학적이면서도 논리적이게 벌써 예전과는 다른 풍경입니다. 물론 관찰일기에 그날 본 내용과 느낌을 기록하기도 하고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그림도 그립니다.

암탉이 하루에 알을 낳고 품는 모습을 보며 병아리가 부화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들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백실크 오골계는 벌써 4마리의 중병아리를 훌륭히 키우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관찰하던 한 1학년 학생은 닭이 낳은 알을 보며 신기해 하며 ‘엄마가 마트에서 사 오시는 달걀만 보다가 실제로 닭이 낳은 알을 닭장에서 보니 정말 신기해요.’라며 즐거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사육장에 가서 먹이를 주며 새와 토끼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 5. 또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것

사육장은 학생들에게 생명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잠재적 교육과정과 과학과의 주변의 생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 교육과정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원 및 학생들이 점심시간, 체육시간 등 일과시간 중에도 동물을 수시로 관찰하고 있으며, 저학년 학생부터 고학년 학생까지 먹이도 주며 친밀한 애정의 마음을 갖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6. 또 다른 생명의 기대효과

공부다 컴퓨터게임이다 해서 너무도 삭막하고 바쁜 아이들에게 사육장은 또 다른 그들만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짐짓 소홀해지기 쉬운 현대사회의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은 생명의 탄생과 자람을 지켜보면서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과학을 통한 나눔과 배려가 있는 장유고 이야기



강 은 경  
장유고등학교 교사

## 1. 장유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경남 제1의 도시로 발전하는 김해에서 2001년 개교한 김해 장유고등학교는 총 35학급의 전형적인 면소재지 도시형 학교로서, 지역 내에서도 단연 으뜸인 명문 고등학교이다.

## 2. 장유고에만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문화·과학 체험 활동중심의 장유고등학교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기쁨이 충만한 학교’,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학교’, ‘교육의 선진화로 앞서가는 학교’를 만들고자 장유고(정규상 교장)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로를 지도하며 명문대 진학률이 해마다 높아져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유고등학교는 교육 수요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과학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세 가지 역점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탄력적 교육과정을 통한 과학학력향상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애들아, 장유고 천문대로 별보러 가자’라는 주제로 학교 옥상에서 천체망원경 조작으로 시작되는 특별한 과학보충수업, 조하리의 창 모델을 통해 잠재된 나를 이끌어 개방된 나를 발견하게 하는 입학사정관제 대비 프로그램, 이공계 직업군과 연계된 다양한 과학 동아리 체험활동, 본교 졸업생(멘토)과 재학생들(멘티)의 만남의 장으로 대학생 멘토링제 지도 등 보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진로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학생의 끼를 살리기 위해 맞춤형 과학 지킴이를 통하여 오감으로 느끼는 과학체험의 날 운영, 학생 끼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창의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09. 창의력올림피아드 전국 1, 2위의 좋은 성과를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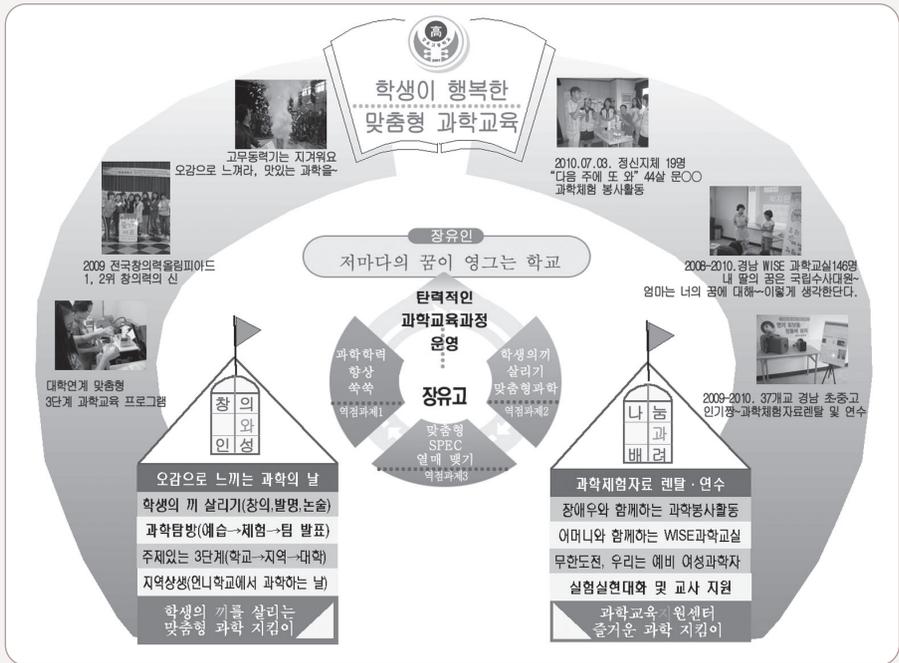
또한 학교 밖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최초로 7월 3일 김해 장유에 있는 사회 복지시설 한마음학원에서 소외계층의 과학마인드 저변 확대와 장애우를 이해하기 위하여 ‘장애우와 함께하는 과학체험 봉사교실’을 열기도 했다.

01



01 장유고등학교 전경

세 번째로 과학교육지원센터 즐거운 과학 지킴이를 추진하여 과학체험자료 개발 및 렌탈 서비스·맞춤형 과학교육지원센터 지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학교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과학체험자료 대여 사업은 52개 학교가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기가 느껴진다.”며 “장유고는 인근지역으로부터 귀감이 되어 나눔의 과학을 선도하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3. 장유고에는 과학 이외 다른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하나로 열두의 효과를 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 30분씩 독서릴레이운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있다. 매월 학급별로 책과 명화를 돌려보면서 일 년 동안 12권의 책과 명화를 감상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 4. 지난 5년간 수능하위등급 많이 줄인 일반고 전국 7대 학교에 선정된 비결은 무엇입니까?(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정)

장유고는 최근 5년간 수능성적 분석결과에서 내신 6~9등급의 하위권 학생 성적을 끌어올린 전국 일반고교 순위에서 언어영역 3위, 수리영역 6위, 외국어영역 4위를 차지했다. (KBS 뉴스 2009.12.10)

장유고가 우수학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능 성적 향상 비결 = 교사들의 열정

-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 우수한 신입생 유치
- 학생의 열의,                                      • 관리자의 적극적인 지원
- 독서논술, 과학탐구 분야 교사연구팀 지도

〈전국 지난 5년간 수능하위등급 많이 줄인 일반고 7대 대도시〉

■언어영역

순위	지역	학교	비율(%)	비율(%)	비율 변화 (%포인트)
1	경기 용인시	흥덕고	77.8	17.1	-60.7
2	대전 유성구	충일고	88.7	36.4	-52.3
3	경남 김해시	장유고	94.1	42.5	-51.6
4	경기 용인시	죽전고	73.5	26	-47.5
5	경기 용인시	기흥고	70.6	25.9	-44.7

■수리영역

순위	지역	학교	비율(%)	비율(%)	비율 변화 (%포인트)
1	대구 달성군	대원고	97.7	42.3	-55.4
2	경기 용인시	기흥고	81.6	27.2	-54.4
3	전남 목포시	목포해인여고	90.2	43.6	-46.6
4	경기 용인시	흥덕고	71.7	26.7	-45
5	경기 용인시	죽전고	74.6	31.7	-42.9
6	경남 김해시	장유고	81.9	43.4	-38.5
7	전남 목포시	목포홍일고	60.9	22.7	-38.2

■외국어영역

순위	지역	학교	비율(%)	비율(%)	비율 변화 (%포인트)
1	경기 용인시	흥덕고	75.9	12.7	-63.2
2	경기 용인시	죽전고	74.1	23.9	-50.1
3	경기 용인시	기흥고	75.6	26.8	-48.8
4	경남 김해시	장유고	93.9	47.2	-46.7
5	대구 달성군	대원고	86.3	45.1	-41.3

“학생들의 숨겨진 끼를 적극 계발하고 이공계 진로지도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일반계 고등학생의 특성과 부합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맞춤형 과학교육에 대해 만족스러워하기 때문이죠. 또한 무엇보다도 교직원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우수한 과학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노력한 열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5. 장유고등학교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 공부하기 좋은 면학분위기가 조성된 학교
- 나.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 학교로 대학 진학에 유리한 학교
- 다. 일반계 고교에서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진으로  
모든 것이 준비된 학교가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 미 선  
사천 용산초등학교

# I am Happy! 행복프로젝트에 도전하다



01



02



03

## I. 열정과 도전정신은 아름답다

사천시 용산초등학교(교장 정윤봉)는 사천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큰 학교이지만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관내에서도 가장 교사의 이동이 많으며, 원해서 오는 교사보다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그런 학교로 소문이 나 있다. 그러나 학교 정문을 들어서서는 순간 눈앞에는 와룡산 자락이 펼쳐지고, 사계절의 변화를 온 몸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지만 이 속에 숨쉬고 있는 이들은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뿔뿔 뭉쳐진, 조용하지만 결코 조용하지 않은 아름다운 학교이다.

꿈과 사랑을 가꾸는 행복한 GPS 교육 실현을 위해, 바르고 실력 있는 명품 학생 만들기(Global citizen), 인품과 전문성으로 존경받는 교원(Pride teacher), 내 집 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학교(Sweet school)를 향한 'I am Happy! 행복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 II. I am Happy! 행복프로젝트

바른이, 이름이, 재능이, 소통이, 초록이를 향한 행복 통장을 제작하여 전교생에게 배부하고 2010학년도 교육활동 속에 학년별 수준에 맞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과정에 삽입, 편성하여 실천하고, 도전하는 용기, 성취하는 기쁨을 통하여 행복한 미래의 꿈을 가지도록 하였다.



- 01 바른이
- 02 이름이
- 03 재능이

### 1. 『덕성+』 공수인사의 생활화로 바른이가 되다

1교 1덕성 가꾸기 덕목을 ‘공수(拱手) 인사하기’로 선정하여 가정, 학교,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인사 예절을 알게 하였다. 반복 훈련과 실천해 보는 경험을 통해 예절바른 사람으로 육성하고자 공수인사예절을 잘 지키는 학생을 홈페이지에 칭찬하고, 학교장 표창을 통하여 예절 바른 어린이가 되도록 하였다.

### 2. 『학력+』 다양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 실천으로 이름이가 되다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학생들의 능력과 학부모와의 상담,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목표 점수를 정하고 매월 평가를 통하여 인증받는 학력인증제 추진, 우수학생과 부진학생과 짝이 되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학생멘토링제 운영,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한 학력오름반 운영, 7품 도전 독서인증제를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움으로써 2009학년도 비해 2010학년도 학습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 3. 『재능+』 오카리나 연주로 재능이가 되다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악기 연주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학교의 특성화 교육활동으로 2009학년도부터 오카리나 연주를 학생들에게 지도하였다. 학년별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학년 발달 수준에 맞게 교과활동(즐거운 생활, 음악),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 후 오카리나 급수제를 도입하여 기초기능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반별 교내오카리나 연주대회를 가진 결과 2년째인 올해는 연주 실력이 매우 향상되었다.

### 4. 『소통+』 영어 노래 부르기로 소통이가 되다

신나는 리듬과 율동에 맞추어 교과에서 배운 영어노래를 기초로 하여 기초영어표현을 익히고, 학년별 수준에 맞는 영어 노래를 선정하여 매월 방송조회를 통해 발표하게 하고, 영어 노래 인증급수 카드를 통해 성취의욕을 고취시켰으며, 개인별 영어 노래 부르기 대회를 통해 자신의 소질 향상과 함께 노래를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영어과 기초부진아가 없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 5. 『녹색+』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초록이가 되다

용산초등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걸어서 약 15분~20분 거리의 아파트에 거주한다. 학부모들은 걸어서 통학하기에 멀게 느껴지는지 자녀들을 자가용으로 등하교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사천시의 협조로 몇 년 전 학교와 아파트 사이의 농로를 확장하여 통학로를 만들었다. 이를 계기로 걸어서 학교다니기, 자전거를 이용하여 학교다니기를 꾸준히 실천하여 왔으며, 자전거타기 캠페인도 해마다 실시해 왔다.

04



05



04 소통이

05 초록이

올해는 정부의 저탄소녹색 운동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본교에서는 저전거 거치대 정비, 안전모 쓰기, 저전거 수리소 설치, 자전거 번호판 부착 등 환경조성에 힘썼다. 녹색 교통의식 함양을 위하여 유관기관을 이용한 자전거 안전교육 실천(연1회) 및 퀴즈대회, 자전거 면허시험제를 통한 자전거 면허증 발급, 자전거 타기 녹색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할 활동을 하였다.

### III. Sweet School을 실현하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우리 용산 초등학교 학생들은 내 집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소리 없는 노력과 실천을 통하여 사천교육지원청 주최 종합 체육대회 우승, 교실수업개선 수업연구대회 우수교사 확보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의 성적 향상 등 학생이 행복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 남은 교육 활동 과제도 시끌벅적 행복한 소리가 멀리까지 퍼질 수 있도록 이 곳 용산초등학교 교사, 학생 모두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 행복드림 문화재지킴이 활동으로 전국 청소년지킴이 우수단체에 선정되기까지



정창교

사천 곤양초등학교 교장

본교는 행복드림 문화재지킴이단을 2009년 4월 문화재청에 등록하여 정식 위촉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학생들의 참여로 가꾸고 지켜나감으로써 문화재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 짓는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우리 고장의 소외된 문화재를 찾아 지속적으로 가꾸고 즐기며 문화재에 대하여 친근감을 갖게 하기 위해 5가지 과제를 추진하였다.

문화재를 사랑하고 보존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한 2년 간의 실천과 노력의 결과 우수 청소년문화재지킴이 단체로 선정, 문화재청장 포상을 받았고 문화재청 지정 문화유산교육 으뜸학교로 선정되었다.

###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위한 여건도 내실있게 조성했지요

#### 발대식 및 사천문화원과의 협약식

2010. 4월 지킴이단 단원 28명과 학교운영위원회, 교사, 학부모, 문화관광해설사를 모시고 발대식을 실시하여 힘찬 구호와 선서를 통해 앞으로 적극적 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고 사천문화원장과의 협약식을 통해 문화유산교육 추진 과정에 필요한 조사연구, 교육, 자문 등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약속받고 현재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 지킴이집 문패 달기 및 단원 조끼 착용

지킴이 가정마다 방문하여 '문화재 지킴이의 집' 문패를 달아주고 가족지킴이로서의 활동을 이끌어냈고 조끼를 구입하여 활동시 착용함으로써 지킴이로서의 긍지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 사천 문화유산 탐구학습 길잡이 제작

사천시 소재 문화재 중 유형문화재 18, 무형문화재 5, 문화재 관련 행사 6, 문화재 관련시설 6곳을 선정하여 탐구학습과정안, 참고자료, 계획서, 보고서, 학습안내, 문화재 관련 자료를 수록하여 제작하였으며 전 학생에게 배부하여 교과 관련학습 및 우리고장 문화재에 대해 긍지를 가지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01



02



03



01 문화재지킴이단 발대식

02 문화유산교육 협약식

03 지킴이집 문패달기

## 학교 역사관 증축 및 역사기록물 수집 운동 전개

개교 이래부터 현재까지의 학교역사 자료를 수집·분류하여 정리해 두었으며 본교 코너와 3개 통폐합학교로 각각 마련하여 100년 역사의 학교 역사관을 조성하였다. 수집자료는 총 263종 1,257점으로 학교상징, 교육과정, 학교행정, 업무자료 등으로 학교역사관을 증축하여 다양한 자료를 짜임새 있게 정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다.

## 문화재 지킴이 5과제를 꾸준히 실천했지요

###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사 탐구

2010년 10월까지 11회에 걸쳐서 행복드림 문화재지킴이 단원 28명과 함께 매월 3주 토요일에 사천문화유산길잡이를 활용하여 사전학습을 하였다. 탐사 시에는 사천시 문화관광과의 협조를 받아 문화관광해설사와 동행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하여 보고서와 간단한 소감을 문화재청 한문화재 한지킴이 블로그에 올리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서부경남 지역, 경주, 김해, 통영의 문화재도 폭 넓게 탐방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 문화재 주변 정화 활동

산간오지에 떨어져 있는 지속적인 관리 손길이 미치지 않는 문화재를 찾아 문화재 지킴이의 손길로 쓸고, 닦고, 가꾸는 활동에 주력하여 문화재 지킴이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 문화재 모니터링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단체 활동시 또는 가족과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문화재 한지킴이 활동을 강화하여 문화재의 보존실태 및 관리현황 등을 모니터링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사천시 문화관광과에 통보하였다. 세종대왕 단종태실지는 민간인의 묘지로 변해 당시 조형물만 일부 남아있어 마음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일부 지식묘에도 개인 비석이 자리하고 있는 등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었다.

### 문화재 소개 및 홍보

문화재 소개 및 홍보활동을 통한 교육효과로 문화재에 대한 의식의 변화에 주력하고 문화재 학습 및 문화재 연수를 통해 홍보와 관련 정보를 습득하였다. 학교 소식지 '창의적 도전'에 월1회 관련 문화재를 적극 홍보하고 문화재 보호의식을 강화하였고 학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에도 보도되는 등 적극 홍보하였다.

### 문화재 관련 기관·단체 탐방

문화재 관련 기관·단체는 가산오광대 전수관, 삼천포 12차 농악전수관, 박연묵 교육박물관, 향토역사관, 사천 항공우주엑스포, 박재삼 문학관 등을 탐방하여 문화

04



05



06



- 04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문화재 탐사
- 05 문화재 정화활동
- 06 지역신문 보도

재 전승을 위한 기관·단체의 역할과 구실에 대해 관련자들의 설명과 함께 문화재에 관한 정보를 폭 넓게 습득하였다.

## 문화재 애호심 함양을 위해 다양한 경험도 했지요

### 충무공 이순신 백의종군로 대장정

2010년 9월, 하동, 진주, 산청, 합천의 이순신 백의종군로 대장정에 나섰다. 강정에서 진배미까지의 도보행군도 실시하여 이순신장군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충무공 백의종군의 마지막 지점이고 삼도수군통제사 임명 교지를 받은 손경례가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었으며, 40여일이나 머물렀다고 하는 합천 모여곡 이어해가에 도착하니 금방이라도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 문화재 관련 지역 행사 및 축제 참여

사천 문화원 주최 우리 고장 문화재 기행문 쓰기 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과 장려상 다수를 수상하였고 2010년 4월 가산오광대 정기공연에 학부모와 함께 참여하여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박재삼 문화재 백일장에 참여하여 다수 입상하였다. 문화과 함께하는 우리고장 역사기행을 실시하여 우리 고장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울러 심기도 하였다.

### 진주·삼천포 12차 농악 전수

곤양 풍물부 운영은 매주 월, 수, 목, 금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진주·삼천포 12차 농악(중요무형문화제 11-1호)을 전수자와 함께 익히고 있으며 개천예술제, 남명선비문화축제, 사천예술제에서 금상, 참방, 은상 등을 입상하였다.

## 보람된 성과도 나타났지요

사천지역의 특수한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적극 활용한 특색있고 창의적인 문화재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생활 능력 신장과 함께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학생상을 형성시킬 수 있었다. 일상적인 학습 공간을 떠나 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재 관련 활동과 문화유산 탐구학습을 전교생 대상으로 전개함으로써 우리고장의 자연환경과 문화재의 가치를 이해하고 나아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공동체 의식, 사회변화에 따른 창조적 대응능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한문화재 한지킴이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 및 문화재 소개·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문화재를 애호하는 심성이 더욱 북돋워지게 되었다.

07



08



09



07 충무공 이순신 백의종군로 대장정

08 가산오광대 공연관람

09 진주·삼천포 12차 농악 전수



#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법도 안다

〈 2010 KT&G 복지재단 주관 전국 자원봉사 활동 사례 최우수상 수상,  
TV 행복한 동화로 방송 예정 사례 〉



박 현 성  
김해 능동초등학교 교사

나의 외할머니는 올해 100살이 되시고 얼마 전 8월 세상과 이별하였다. 내가 20대 시절 외삼촌이 일찍 돌아가셔서 나이 많으신 외할머니를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모셨다.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맞벌이를 하셨는데, 어머니는 우리 사남매들이 모두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있어 치매 증상이 계신 외할머니를 집에 혼자 두시는 게 여간 걱정이 아니셨다. 그런데 그 당시 고맙게도 우리 지역 봉사활동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우리 집에 직접 오셔서 외할머니를 돌보아 주시곤 하셨는데, 그 당시 그분들이 얼마나 고맙던지 난 언젠가 나도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되면 남을 도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가게 되면서 난 나의 작은 바람을 이룰 수 없었다. 장교로 군대를 갔지만 초급간부이다 보니 매일 부대에서 생활해야 했고, 밖을 나갈 수 없었기에 내 주변에 어떤 도움을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 내 처신하기도 바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여유조차 없었다.

그러다 2년 4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김해삼성초등학교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난 나의 바람을 이룰 수 있었다. 부대에서 매일 부대원과 생활해야 하는 군생활과는 달리 교사라는 직장생활은 나에게 많은 저녁 시간을 보장했다. 5시 이후 퇴근을 하면 자유로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난 내가 대학교 때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사회복지를 공부하기로 마음먹었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내가 봉사할 곳을 찾게 되었다. 장애인 단체, 양로원 등 여러 곳을 찾다 그래도 교사인 내가 나의 가진 능력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육아원 동생들에게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육아원 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 아이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에 갈 때까지 꾸준히 지도하고 후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육아원 동생들이 육아원을 나가기 전 한번은 나와 함께 공부 할 기회를 주고싶어 매년 5, 6학년 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2005년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매주 가까운 거리도 아닌 거리를 차를 타고 가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교단

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하루 종일 말을 하는데, 저녁시간 또 2시간 동안 말을 한다는 것이 목도 아프고 힘들었다. 그래서 처음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는 말처럼 이제 나도 조금 쉬면서 여유를 부리며 살 수 있는데, 이쯤에서 포기하고 매년 물질적으로만 도움을 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다. 하지만 어린 동생들을 만나면서 부모님이 지금 도움을 줄 수 없는 형편에서 나라도 꾸준히 도움을 주어 동생들이 그들도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육아원 동생들의 학습지도도 해주고 때론 진로 지도와 상담도 해주면서 6년이 넘게 매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사가 되고 가장 잘한 선택이라 생각하고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매년 5, 6학년 동생들을 만나다 보니, 해마다 혼자서 4~5명의 학생들을 가르쳐야 했고, 2개 학년에 모든 동생들의 수준차가 달라 혼자서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여러 선생님들을 모셔 함께 봉사활동을 해 보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두 달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셨다. 사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동생들이라보니 새로운 사람들에게 맘의 문을 잘 열지 않았고, 그런 동생들을 보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위해 내가 해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만두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실 맘의 문을 여는데 조금의 시간이 걸리지만 서로 교감이 되면 정말 허물없이 맘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까지 답아 낼 수 있는 것이 육아원 동생들인데, 그런 행복을 맛보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안타까웠지만 그게 현실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다. 여러 선생님을 소개하였지만 한 분도 두 달 이상을 봉사활동을 못하자 계속 다른 선생님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어찌면 더 동생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맘의 문을 닫게 만드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선생님들께 함께 가자고 말하지 말자라고 결심할 때쯤 나와 같은 생각에 열정을 가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당시 우리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오신 선생님이신데, 우연히 한번 함께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매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나와 학교가 김해여서 봉사활동을 매주 할 수 있지만 함께 봉사활동을 하시는 구은복 선생님은 2009년 7월까지 김해삼성에서 근무를 하고 9월에 함안 이령분교로 발령을 받아 매주 봉사활동을 하기 힘든 여건이었다. 물론 집이 김해지만 매일 두시간 이상을 자가 운전으로 출퇴근하면서 저녁 시간에 봉사활동을 온다는 것은 보통의 열정으로는 하기 힘든 것이었다. 하지만 구은복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였고, 봉사활동을 통해 서로가 추구하는 교육의 모습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나와 구은복 선생님은 11월 27일 웨딩을 올리게 되었다. 결국 나의 봉사활동은 내가 남에게 사랑을 나누어 준 것 이상으로 나에게 인생 최고의 배우자를 선물해 주었다.

사실 말이 봉사활동지만 내가 육아원 동생들에게 배우는 부분도 많았다. 육아원의 한 동생은 부모님이 어려서 자신을 버려 육아원에 오게 되었는데, 그런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고, 부모님을 언젠가 만나게 된다면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그런 동생을 볼 때면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에

가 무엇인지 나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배우게 된다. 그런 동생들과 매년 만나면서 난 한 가지 희망사항이 생겼다.

그 희망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육아원 동생들 중 누군가 나와 같은 교직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동생이 자신이 나온 육아원에 자신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자신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난 지금의 봉사 활동을 뿌듯하게 그만둘 수 있을 것 같다. 사랑을 받을 줄 모르면 사랑을 주는 방법도 모른다는 영화 대사가 생각난다. 난 내가 어렸을 시절 우리 가정의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때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남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다. 그것처럼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육아원 동생들에게는 사랑으로 느껴지고, 지금은 그들이 여러 이유로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언젠가 남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겠다고 느껴, 언젠가 그들이 어른이 되어 남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 그들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을 우리 사회에 나누어 주길 기대한다.

올해는 나의 제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 ‘상상을 현실로 탐구’ 반이라는 봉사활동 동아리를 조직하였다.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과학 마술을 공부하고, 그 마술을 여러 교육 소외 기관을 방문하여 무료로 공연하고, 그 속에 숨은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 육아원, 장애인 시설, 노인 복지 시설, 농촌 길거리 등에서 올해만 20회 이상 마술 공연 및 봉사활동을 하였다. 나의 제자들이 매주 봉사활동을 가는 주말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활동이 신문 기사로 나는 것을 보면 정말 뿌듯하다. 지금까지 청소나, 어르신들 말동무 등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의 방법에서 과학 마술 공연이라는 새로운 봉사활동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봉사활동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여러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면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자신만의 사랑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지금 나와 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 다시 우리 사회에 전파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분들이 또 자신이 가진 사랑을 우리 사회에 나누어 준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그런 날을 기다리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려 한다.

성공한 사람만이, 많이 가진 사람만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지금 내가 나누는 작은 사랑의 실천은 눈물치처럼 계속 커지는 것이기에 지금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찾아 실천하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 얼굴



김철민  
통영 도산중학교 교장

구름조각 한가로이 노닐다가고  
주위가 어둑해질 무렵  
나를 찾아오는 듯한 발걸음이  
잠시 주춤하다  
마냥 설레게 하는 오늘!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  
잃어버린 감성이 솟구쳐  
따뜻한 정 생물처럼  
몰오른 싱그러운 너의 모습!

겨우 움튼 싹은  
아직도 낙서만 한 채  
그곳에 드리워져 있던  
내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잔잔한 미소 그 흐뭇함이  
가슴에 그대로 남아 있는 너



# 안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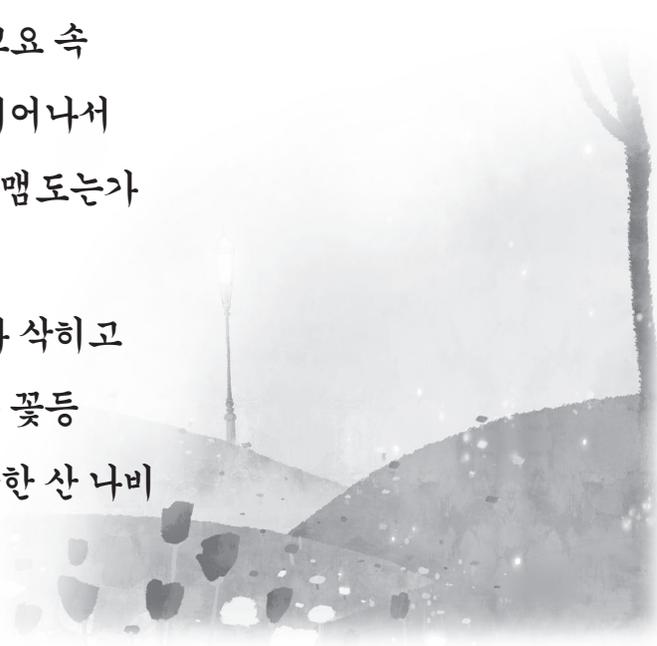


최은재  
사천 서포초등학교 교장

사모의 푸른샘을 향연으로 잠재우고  
머리 올려 풀어 놓던 눈부신 목화밭이었네  
어찌나 은은한 갈잎 떠 흐르는 내 님아

한땀한 세월자락 씻어 바랜 고요속  
밤 물새의 작은 영혼 날날이 깨어나서  
해일로 들끓어오다 물빛 물고 맘도는가

고이 안은 별빛을 아침 해로 다 삭히고  
산하는 푸른아침 저마다 쳐든 꽃등  
나 그대 가슴 아려울 오색찬란한 산 나비





## 교실에서 바라본 풍경



오 영 지

대방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현재 대방초등학교 1학년 5반에서 도우미를 하고 있는 엄마다. 올 3월부터 시작해 하루를 빼고는 매일 아이와 함께 학교에 갔다가 같이 하교하고 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낯설어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 시선 속에는 극성엄마라는 비난이나 ‘애가 오죽하면…….’ 이란 동정이 섞여 있기도 했다.

처음 도우미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나의 아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내 아이는 자폐아다. 게다가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학교생활을 했던 터라 더욱더 한국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미국에서 3학년을 하다 왔지만 이런 저런 고민 끝에 아이를 1학년에 넣기로 하였다. 같은 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통통한 내 아이는 만화 도라에몽에 나오는 통통이 모습 그대로였다. 게다가 달라진 환경 속에서 무슨 돌출행동을 할지 영 불안하기만 했다. 그래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뒤 교실 주변을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추우신데 복도에 계시지 말고 교실로 들어오세요.”란 선생님 말씀에 아이 옆에 자리를 잡았다. 옆에서 본 아이는 더 한심했다. 문자에 집착하는 특성을 가진 아이는 만 3세가 되기 전에 한글과 알파벳을 읽었고 자식으로 글자와 숫자를 만들며 놀았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글자를 쓸 줄 알았기에 별 걱정 안했는데 그동안 방심한 탓인지, 미국생활 탓인지 쓰기도 서툴고 선생님이 읽고 계신 부분이나 지시를 놓치고 있었다. 특히 1학년인 탓에 교과서 뒤쪽의 붙임딱지나 준비물을 사용하는 경우와 수학이나 바른생활처럼 2권의 교과서를 넘나드는 수업에서 어느 책의 어느 페이지인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나는 우선 아이에게 선생님께서 읽고 계신 부분을 조용히 손가락으로 따라 가게 시켰다. 준비물과 붙임딱지는 어느 부분을 보고 찾아가는 지, 그리고 수학과 수학 익힘, 바른생활과 생활의 길잡이는 책을 바꿔가며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 와중에 옆의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직 한글이 서툴러 소리 나는대로 쓰는 아이도 있고 우리 애처럼 선생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곳을 헤매는 아이도 있었다. 붙임딱지나 준비물을 떼어내 수업하는 시간은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아이가 많았다. 아이들은 아직 손끝이 아물지 못해 붙임딱지가 찢어지거나 떼어내는걸 어려워했다. 또 모둠학습을 할 경우에도 서로 역할을 나누지 못한 채 고집만 피우다가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선생님이 다니시며 짚어주시긴 했지만 한 분이 하시기엔 역부족인 듯 보였다. 앞서 말했듯이 2년간 미국생활을 했던 나는 미국부모들의 학교활동 참여가 참 인상적이었던 참이었다. 한반에 20명 남짓이었는데도 수업시간에 학부모들 둘 셋은 들어와 수학, 읽기 등을 도왔다. 미술시간에도 엄마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런 도움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작품에 대한 성취감을 높이고 그 시간을 즐기게 할 수 있는 듯 보였다. 그래서 조금씩 선생님의 눈치를 살피며 주변의 아이들을 도와주었다. 3월이 끝나고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이의 적응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셨는지 나의 계획을 물어보셨다. 미국 학교엄마들의 도우미 활동을 말씀드리며 선생님께서 불편하시지 않으면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저학년 때의 학업성취는 앞으로의 학교생활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에 선생님께서 공감해주셨다.

현재 일주일에 2번 아침시간에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매일 받아쓰기 채점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도 더 친해지고 나와 친해진 아이들은 내 아이에게도 좀 더 다가가는 듯 보였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측면에서는 수학이나 받아쓰기 등의 채점을 돕다보니 선생님 혼자 채점 하실 때 보다 아이들한테 빠른 피드백이 가능했다. 학습과 평가와 피드백이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 아이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 아이만의 어려움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엄마 도우미란 조금은 낯설어 보이는 풍경이 우리 반 안에서는 나를 선생님, 아이들, 내 입장에서 윈윈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학부모들도 열린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 주고 있는 듯하다. 교실 안에서 바라 본 풍경은 교실 밖에서 엿본 것보다 더 아이들을 이해 할 수 있고 도와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곳이었다. 다른 부모님들도 교실 안으로 들어와 아이들을 더 이해할 수 있기를 권해본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이끄시길 부탁드려본다.



# 어머니를 닮은 바다



이 예 진

함안중앙초등학교 6학년 1반

성계의 뾰족한  
가시에 찔려도

상어의 날카로운  
이빨에 물려도

단단한 바위에  
부딪혀도

아무 말 없이  
아픔을 삼키는 바다

할퀴고 쪼이고  
깊은 상처에  
마음이 아파도

터지는 슬픔에  
넘쳐나는 눈물  
꼭꼭 눌러 삼키시며

아무 말 없이 아름답  
품어주시는 어머니와 닮았다.





##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를 읽고



조명숙

산청초등학교 교사

스티븐 코비가 쓴 이 책을 처음 대했을 때 한 해의 절반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9월이었다.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았을 때 많은 일들을 실행 했지만 과연 그 일들이 내 인생에 소중한 일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할 수 없었다. 내가 많은 일을 했고 예전보다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위안하지만 깔끔하지는 못하다.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곰씹으며 이 책을 읽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이나 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시간을 쓰는 방식 사이의 차이점이다. 이런 차이점은 더 많은 일을 더 빨리 하라는 전통적인 ‘시간 관리’ 접근 방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시계와 나침반’으로 그 특성을 표현할 수 있다. 시계는 우리의 약속·일정·목표·활동을 나타낸다. 즉 우리가 하는 일과 시간 관리를 위한 방법이다. 나침반은 우리의 비전·가치·원칙·사명·양심·방향을 나타낸다. 즉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삶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다.

시간을 쓸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요소는 바로 긴급성과 중요성이다. 제4세대는 ‘중요성’ 패러다임에 기초를 두고 있다. 긴급한 일에 그때그때 대응하기보다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기본이 된다. 긴급성이라는 패러다임에 따라 행동하느냐 아니면 중요성이라는 패러다임에 따라 행동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인생에서 얻는 결과들은 크게 달라진다.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의 설명을 위해 매트릭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매트릭스는 시간 소비 활동을 네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제1 상한은 ‘긴급한’ 동시에 ‘중요한’ 것을 나타낸다.

제2 상한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활동들을 포함하며 사용하는 시간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된다. 반면 제2 상한에 시간을 투자하면 제1 상한은 줄어든다. 그리고 제3 상한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것들이 포함된다.

인간에게는 충족시켜야 할 근본적인 욕구들이 있다. 이런 욕구의 핵심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고, 유산을 남기는 것’ 이란 구절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살고자 하는 욕구는 의식주와 경제적 풍요, 건강 같은 신체적 욕구다.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소속감을 가지며, 사랑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회적 욕구다.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발전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정신적 욕구다.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욕구는 의미, 목적, 개인적 적합성을 가지고 공헌하려고 하는 영적 욕구다. 이런 욕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를 긴급성 중독으로 몰아갈 수 있다.

네 가지 욕구의 통합으로 삶에 대해 비전과 열정, 모험 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영적 욕구를 통해 내면의 열정에 이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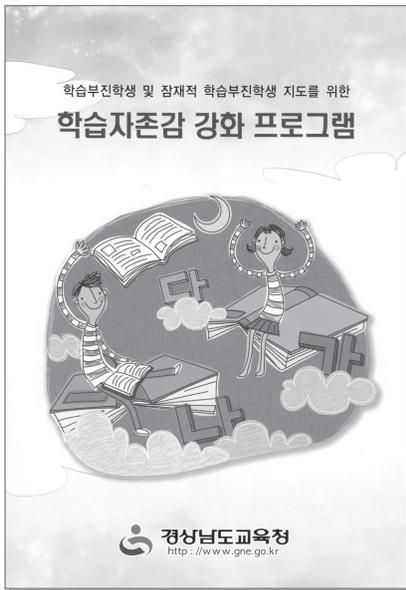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서로 협력할 경우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라는 작가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혼자 능력보다는 협력하고 상호 보완할 때 일을 즐겁게 하므로 성취도도 높은 것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다.

『소중한 것을 먼저하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시간 흐름에 한정되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나의 긴급성 중독과 천부적인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었다.

천부적인 능력면에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일기 쓰기 등을 통하여 만족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 학습부진학생 및 잠재적부진학생을 위한 학습자존감 강화 프로그램 자료 발간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습부진학생 및 잠재적부진 학생을 위한 『학습자존감 강화 프로그램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력중점학교에 배부하였다.

일선 현장의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 학습 부진 학생들의 원인을 파악한 후, 본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학습부진학생 및 잠재적부진학생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더불어 관계도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년 초, 학기 초 적응 활동 기간에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교육적 분위기를 형성하여 즐거운 학교 생활로 이어지게 되고 학생들의 정서가 안정되고 마음이 풍요로워져 학습에 대한 적응력도 향상될 것이다.

※ 자료 다운로드 : 도교육청홈페이지/부서별홈페이지/교육과정기획과/자료실

작품명 : 파란 하늘, 흰 구름



파란 하늘, 흰 구름

보들레르처럼 저도 구름을 사랑했지요.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구름은 내게 와서 나의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 다음에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내가 보고 싶은 건 바로 너,  
파란 하늘과 흰 구름

- 최영미의<화가의 우연한 시선>중에서-



---

---

---

박 규 동

- 현 경남은혜학교 교사

# 초등학교 취학 이렇게.....

## ◆ 초등학교 취학연령 기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 초등학교 취학 절차 및 흐름도

